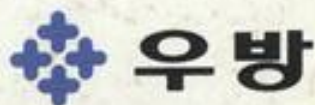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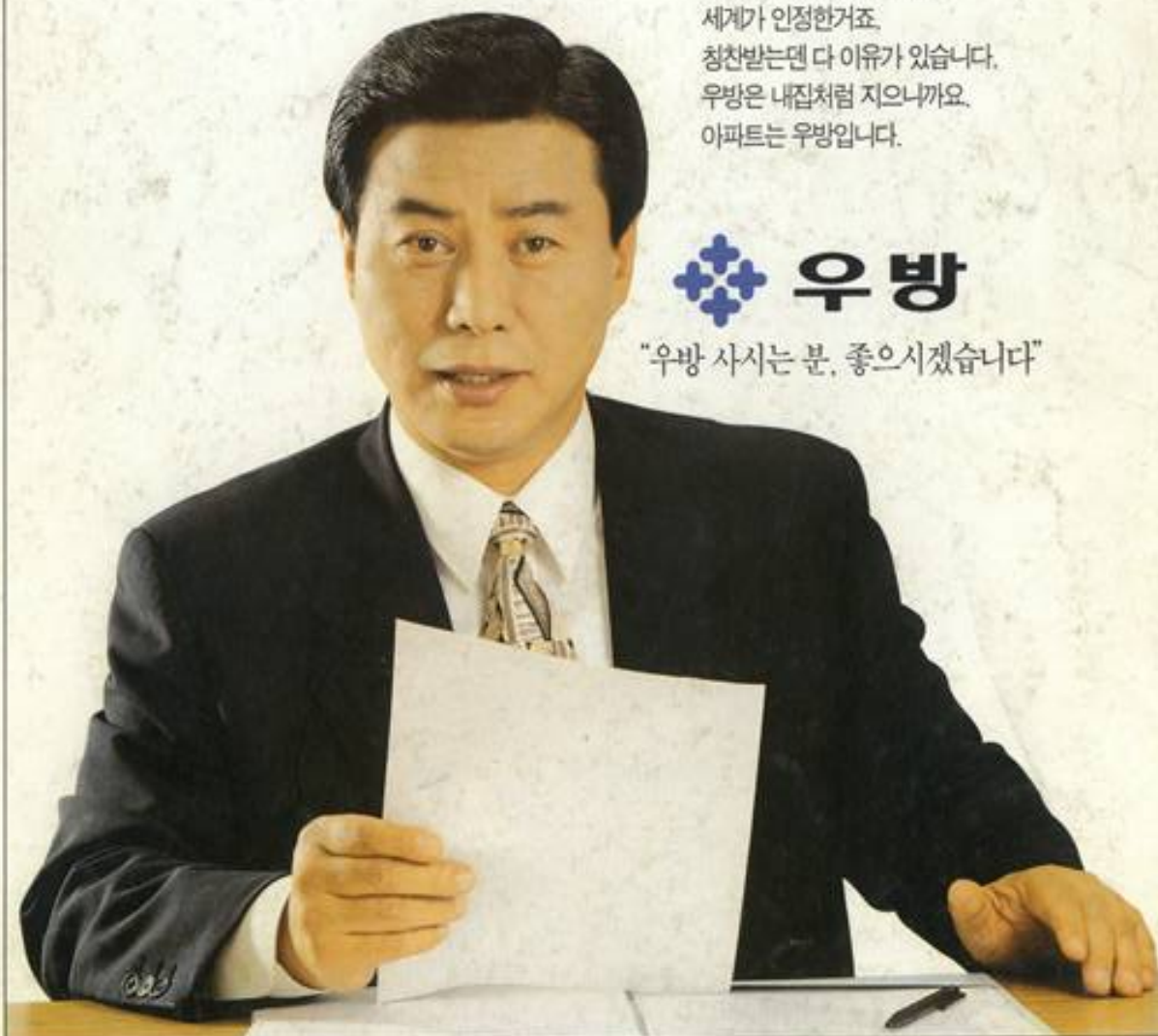


“우방 사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신도시 입주자 만족도 1위로
소비자 여러분의 격찬을 받은
우방아파트가
품질경영 100선기업
선정에 이어
ISO 국제품질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마침내 우방의 건축품질을
세계가 인정한거죠.
칭찬받는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방은 내집처럼 지으니까요.
아파트는 우방입니다.



"우방 사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여성



특·집

- ① 문민정부 여성관련
공약사항 중간평가 좌담회
②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

95-12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015비비 전국 광역서비스 실시!



이제 북녘 땅만 남았습니다
비비 015가 안 통하는 곳은-

8월 1일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게 정확하게 통하는
015 비비 전국 광역 서비스 실시.

한라에서 비비하면 삼각에서 비비 / 015비비로 전국이 하나로 통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015비비만 있으면 전국 어디로나 곧바로 통하는 015
전국 광역 서비스 / 가입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통하지 않던 불편함을
이제 015비비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풀어 드립니다. 전국 광역 서비스라면
단연 015비비!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015
비비와 함께 더 편리한 생활, 더 즐거운 생활을 누리십시오.

015비비 전국 광역서비스 이용방법

1. 기존의 호출기에는 기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광역서비스용
호출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2. 가까운 015비비 영업소나 대리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간편하게 전화,
팩스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국을 초단위 생활권으로-

015



●강원지역 통신(강원권) 0371-732-6881 ●광주지역 통신(광주, 전남권) 062-590-015 ●충청지역 통신(충청권) 042-5678-015 ●부산지역 통신(부산, 경남권) 051-6400-015 ●서울지역 통신(서울, 경기권) 02-5599-114 ●경남지역 통신(경남권) 055-256-0150 ●전라지역 통신(전라권) 0652-782-015 ●제주지역 통신(제주권) 064-483-015 ●충남지역 통신(충남권) 042-635-0150

월간 여성

월간여성 12월 통권336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女聲

여성들의 사회진출에의 능동적인 자세를 기대하며/김명자

특집/1 좌담회

특집/2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

6특집/1 좌담회

문민정부 여성관련 공약사항 중간평가

18특집/2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발제 1

정치드라마 모니터 분석결과/전상규

30특집/2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발제 2

정치드라마의 정치사회학적 의미/김기태

38특집/2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토론

정치드라마의 현실과 미래

41여성관련통계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43회원단체를 찾아서

여성문제연구회

44해외여성통신

총선에 여성후보 내기 위해 몽골여성들 하나로 뭉치/이영남

48여성학 지상강좌

여성과 건강/최영희

52초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육아지원 정책/신용자

58여성계 동향/이구경

59협의회 소식

62우리들의 광장

66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에의 능동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김명자 (숙명여대 교수 · 본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

올해는 여성들에게 나라 안팎으로 의미가 큰 한해였다. 밖으로는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회의로 여성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고, 안으로는 여지껏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던 여성의 사회진출에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놀랄 만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그러나 여자들의 갈 길은 아직도 먼 듯하다. 달리기와 출발점이 너무 쳐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위스 IMD(국제경영연구소) - WEF(세계경제포럼)의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차별을 42개국중 41위로 매겼고,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우리의 여성세력지수는 116개국중 90위였다. 자타가 공인하는 뜨거운 교육열로 여성 취학을 130개국중 27위, 대학교육의 여성비율 127개국중 43위이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27개국중 59위,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116개국중 112위인 것은 무슨 연유일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약 47%)이 선진국 수준(60%)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뿐 아니라 취업에서도 중졸 이하가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뚝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가 공무원 중 29%, 지방 공무원 중 19%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3급이상 고위직에서는 각각 2%, 0%이다. 여교사는 국민학교 53%, 중학교 48%, 고등학교 23%이나 여교수 비율은 14%로 떨어진다. 이렇듯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좋은 자리'에서는 밀려난 채 단순기능·저생산성 부문에 치우쳐 있는 고질적 성분절 현상은 과연 어떻게 타개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면서도 사회적 해결의 노력이 미흡했고, 남성과 여성의 공통의 문제이면서도 여성만이 부동켜 안은 채 별 진전이 없었던 것, 그것이 여지껏의 여성문제였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따르는 사회변동은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게끔 몰아부치는 양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로 고민했던 선진국들은 자연적인 개선 추세에 맡기기에는 현황이 너무 다급하다는 인식 아래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인 적극조치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적극조치로 당겨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일본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것 같다. 일본이 70년대 여성인력 활용에 눈을 돌린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장 및 경제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즉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숙련 노동력이 딸리게 되고, 소비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자,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여성 고용을 늘리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평등법 제정이라는 시혜(?)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들 변화가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의 의지와 맞물려 전개되지 못했던 까닭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발전 정책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함으로써, 공은 한차례 여성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를 성공의 기회로 삼느냐 여부는 여성들 자신의 보다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에 달린 바 크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워낙 역사가 일천하여 그 나름의 훈련경험으로 탄탄한 전문을 형성하기에는 못미쳤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조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여성들 자신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여성계는 이제 사회진출이 단순히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종전의 진출구조상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함을 인식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능동적인 자세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여 그 구체적 방법을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집

- ① 문민정부 여성관련
공약사항 중간평가 좌담회
- ②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

문민정부 여성관련 공약사항 중간평가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시 민주당이 내건 공약중 62항에서 69항까지 8개 항목이 대 여성공약이었는데 현재 대통령 임기가 중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그간 이 공약이 이행된 사항과 아직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회에서는 정무2장관실과 노동부, 보건복지부 이 세부처의 책임있는 분들과 이 공약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여성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중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 시: 1995년 12월 8일 15:00

장 소: 본회 2층 회의실

사 회: 이연숙(본회 회장)

참석자: 김명숙(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박길상(노동부 근로여성정책관)

박우건(정무제2장관실 조정관)

이정자(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희(대한간호협회 회장)

▶ 사회: 14대 대통령 선거시 여협에서 대통령후보를 초청해 대여성 공약을 들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공약중에서 62항에서 69항까지 8개 항목이 대 여성공약이었습니다.

그후 여협은 각 부처 장관을 일년에 여섯 분 정도 초청을 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우리의 희망하는 바를 반응을 시켜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의 중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그간 이행된 사항과 아직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정무2장관실과 노동부, 보건복지부 이 세부처의 책임있는 분들과

이 공약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있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그동안 진척된 사항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박길상(노동부 근로여성정책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여성관련 공약

62.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각종 법과 제도적 장애를 완전히 개선한다.

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정부부처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보완·강화하고 가족법을 개정한다.

다. 시간제·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한다.

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공적기준으로 반영한다.

여성관련 공약 62항의 ㉔ 번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폭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11월 7일에 완료가 됐고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그간 여성계나 일부 학계에서 논의된 게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실현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희롱문제 등이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 사회: 그런데 62항을 보면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각종 법과 제도적 장애를 완전히 개선한다」고 했는데 ‘완전히’라는 말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요?

▶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 지금 저희가 국회에 청원을 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세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간접차별, 파견법 이 세가지를 했는데 간접차별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안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성폭력특별법에서 처벌가능하다고 보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것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길상: 성희롱문제와 간접차별문제는 노동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보다는 다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산업사회에 분명히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법리상, 법체계상 맞느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외국의 입법 예등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㉔ 번을 보면 「시간제·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간제 근로는 이 입법을 둘러싸고 경영

계와 여성계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에 시간에 비례해서 정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아무래도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보니까 근로기준법에 각종 법정 근로 기준을 단축한다든지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간제 근로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내근로자 문제는 지금 ILO에서도 금년총회에서 논의가 됐고 내년 총회에서도 정식 의제로 논의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ILO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감안을 하고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 예를 수집해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㉔ 번은 공약과 관련해서 보면 실현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 이정자(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실제로 ㉔ 번의 논의를 놓고 경영자들측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 박길상: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영계의 입장은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짧기때문에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63항으로 넘어갈까요?

▶ 김금래(본회 사무총장): 62항을 다 짚고 난 후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봉숙 소장께서 오늘 부득이 한 일로 못 오셔서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셨습니다. 62항과 관련해서 보내오신 의견을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계속 안 할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94년 12월

정부부처의 통폐합등 대대적인 정부기구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여성계의 정부 제2장관실을 여성처 혹은 여성부로 승격시키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와대 여성담당 정부비서관을 일시적으로 운영했으나 현재 사회와 여성업무와 통합되어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국회의 여성특별 위원회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행정조직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방조직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김명숙 국장님이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 이것은 내부부에서 이야기를 할 성격이지만 여성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도에서 가정복지국을 없애고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업무, 보육업무를 1개 계로 전부 축소를 하고 부녀복지관만 여성실이라는 이름으로 빼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국장들이 국가 4급인데 여성실장은 지방4급의 일반직, 별정직으로 해서 급수는 같지만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녀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이름만 변경해서 여성교육계,

여성정책계, 생활개선계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보기에는 여성정책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처럼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이 다른 업무도 다루어보고 같은 직급에서 국장을 했는데 이것을 여성업무만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빼내서 실장이라는 이름을 주고 과 하나만 말도록 되는 거죠. 과거에는 3개의 과를 통괄을 했는데 이제는 여성정책과 하나만 말아 부지사 보좌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가정복지국을 여성이 국장을 맡으면서 그대로 두고 여성정책관을 별도로 4급을 두어서 여성업무를 보강했습니다. 보강을 하려면 이런식으로 해야지, 외견상으로만 부각되고 내용면에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사회 : 약속은 해놓고 실제로는 약화되는 현상이니까 이번에 공문을 보내 공약사항을 환기시키고 지방자치의회기구 의장, 지방자치 단체장, 내무부, 청와대, 총무처, 각 정당 등에 주지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우건 : 대선이후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의 수를 조사·분석하여 위원회를 가능한 줄이면서 종전



이연숙 (본회 회장)



김명숙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의 위원회와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규정은 개정해서 현재 여성특별위원회는 명칭은 달라졌지만 정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총리실에서 평가했습니다.

▶ 사회 : 기능을 보완했다라고 대통령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UN의 'Plan of Action'과 10대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직속기구가 있어서 상징적으로라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박우건 : 가사노동가치는 각종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세제 및 보험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증여 부분의 상한선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외의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가사노동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NP가치 산정 부분등은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 사회 : 계속사업으로 할 의지가 있고 앞으로 임기 내에 만들어낼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강화면은 여성부의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공약이 불이행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박우건 : 여성부처가 설치되진 않았지만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자를 지정하는 총리 훈령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여성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체제의 가장 큰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금래 : 63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62항의 ㉔ 번에 가족법을 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족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혼인에 관한 특별법으로 내년 1년간 동성동본 결혼 부부 혼인신고를 받아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공약은 안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 : 62항의 ㉔ 번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공적기준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번 북경대회의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은 안되어 있지만 조속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되어야겠습니다.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㉔ 번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민자당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기왕에 있는 여성관련법과의 관계성 검토가 너무 안된 상태에서 입법예고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63. 여성인력의 개발과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가. 여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급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나. 3군사관학교, ROTC장교 등 군사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하여 여성전문가를 양성한다.

다. 시·군·구단위에 「여성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 장려책을 도입한다.

마. 채용에서 승진,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전반에 걸쳐, 모든 차별관행이 제거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 사회: 박길상 정책관님께서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 박길상: 이 항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㉔ 번의 경우 고급 여성인력의 양성에 대한 것인데 금년 9월 신경재추진회의때도 그렇고 세계화추진위원회 10대 과제에도 그렇고해서 교육부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전자통신관련 전문 특화된 분야의 전문교육고등학교로 한다든지, 여대에 공대를 신설한다든지, 이공계의 비중을 높이는 등 산업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㉔ 번의 3군 사관학교의 문호개방문제는 이미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 사회: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은 2000년까지 50%까지 올린다는 게 이번에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경찰 대학도 97년부터 10% 이상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㉔ 번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길상: ㉔ 번에 「시·군·구단위에 여성취업정보센타를 확대·운영한다」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를 시행하면서 고용보험제의 핵심사업으로 취업 정보, 직업 알선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정보센타는 고용보험 실시를 계기로 내년부터 확장,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 정감자: 지금의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취업정보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안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러한 여성노동관련사업을 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서의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련의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지금 전국에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이름으로 67군데가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 여성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은 있지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확장할 때 기왕에 장소가 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 박길상: 현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무부 산하의 시군구에 다 되어있고 노동부 전국 46개 지방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파장이 노력해서 예산을 탄 게 하나 있는데요. 노동부 6개 지방청에 시범적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근로여성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들이 오면 아기도 맡기고 겸해서 취업정보도 제공하는 식의 여성취업지원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군구와 지방사무소에 구인구직취업정보센타가 있는데 여성만을 대상으로하는 센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㉔ 번에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 장려책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공약이 추상적이라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고용정책 기본법도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행정의 핵심을 인력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한해서 여성고용촉진을 위해서 금년 새추위의 공무원에게 변형된 가산점제의 마련, 공공기업등 공공부문에서의 장려책을 도입한 것을 보면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를 해 봐도 흠족하지는 않지만 금년에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㉔ 번의 「채용에서 승진,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전반에 걸쳐, 모든 차별관행이 제거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88년부터 시행을 했고 9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은행권부터 제 2금융권, 금년도에 200인 이상 기업체 취업규칙을 전부 심사해서 남녀차별규정을 전부 제거하고 내년도에는 150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지도는 한계는 있지만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감자: 채용과정에서의 차별문제는 그동안 행정지도를 해왔고 여성단체들이 집단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고 해서 결과적으로 고령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지요. 그런데 아직도 입직이후에 배치전환, 승진, 퇴직까지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㉔ 번에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과도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고용이후에 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채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3항의 ㉔ 번은 어느정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애: 노동부에서 각 사업장에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제를 행정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법화되지 않더라도 행정적 지도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금호실업에서 처음으로 사내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제를 만들었잖아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 출선수범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64. 각계각층 여성을 위한 복지를 내실화한다.
가. 주부, 근로여성과 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여성사회교육을 강화한다.

나.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다. 농어촌여성의 과중한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라. 저소득 모자가정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영세민자녀대상 학자금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마. 노인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 보건시설을 정비하며 재가요서비스를 보급한다.

바.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촉진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사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건복지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명숙: 297개의 사회복지관이 주로 어려운 계층에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그중에 여성사회교육문제도 물론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나 부녀복지관에서도 이런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 이정자: 2년전에 비교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 김명숙: 2년전과 비교는 못해봤지만 해마다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기관장들이 인식함에 따라 늘리고 있습니다.

▶ 사회: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라고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 늘려 주었습니다.

㉔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번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청해서 교육재정은 늘어났고



박길상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관)

10대과제에서 '급식'에 대한 것은 없던 것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은 경감되지 않았지만 기타 10대과제에서는 언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㉔번 「농어촌 여성의 과중한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중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중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조금더 속도를 내 주길 권의해야겠습니다.

㉕번 「저소득 모자가정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영세민자녀대상 학자금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숙: 이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모자복지법 상에도 임대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500세대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초중고등학교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전면 면제가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내년 부터 성적상위 30%까지 학업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먼저 지원하고 98년까지 전면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 ㉔번 「노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박우건 (정무제2장관실 조정관)

노인보건시설을 정비하며 재가의료서비스를 보급 한다」는 것은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명숙: 하나도 안 된게 아니구요. 현재 노인이 전체인구의 5.7%입니다. 그중에 여성노인이 63%인데 여성노인 이렇게 하고 남성노인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고스톱을 하는 것도 치매에 예방이 된답니다. 워낙 열악하니까 꼭 그걸 질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노인복지타운인 실버타운을 10억 씩 투자해서 다섯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도서관, 산책로 등을 만들어 자기 수준에 맞게 와서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예방도 하며 이것이 잘되면 더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는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시설인데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이곳을 노인들의 1차 진료기관으로 해서 물리치료실, 목욕시설을 두어 노인들이 쉽게 치료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노인에게 의료보험을 365일간 적용하도록 해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치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가난한 노인, 독거노인에게는 자기부담을

50%로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예산도 100% 확충했습니다.

▶ 최영희(대한간호협회 회장): ㉔번이 간략히 기술되었는데 이 공약을 보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노인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가 되어서 완성이 된 거구요. 둘째는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추진사항을 보면 건강관리법 제정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복지법은 있던 것을 개정해서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노인복지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법을 개정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개선요망 사항은 노인건강관리법의 제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시범사업중인 가정간호사업의 확대시행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재가의료서비스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전문간호사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모자보건에 대해 첨가시킬 것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유아를 가진 직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유채유 및 보관시설이 미흡하며 근로기준법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해 1일 2회,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모유채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로 유익하며 모유수유의 권장 및 영유아의 건강,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규정이 ILO 모성보호협약에 비해 미흡합니다. 출산휴가기간(2개월)이 ILO(3개월)보다 짧고, 유산 및 임신, 출산으로부터 발생한 질병, 위험유해한 업무 및 물질,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신부 보호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외에 "모든 학교에 보건전담실을 설치하고 양

호교사를 배치한다"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초, 중, 고의 양호교사 배치율이 45% 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김명숙: 노인건강관리법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년에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보험쪽, 의료쪽 등에서 걸리고 여기저기에서 반대하여 노인복지법을 내년에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다 함께 할 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회: 일단은 공약한 것을 시작했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㉔번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촉진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10대 과제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시키는 것은 앞으로 10대과제 이행을 독촉하는 것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해 박우건 조정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65. 여성의 사회·정치참여 확대를 지원·촉진한다.

가. 전업주부들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고 시간제취업, 재가근무, 탄력적 근무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정착시킨다.

나. 고위정책결정직에 능력있는 여성을 과감히 기용하고 각급 의회의 여성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참여 비율을 높인다.

다.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 참여를 대폭 늘린다.

▶ 박우건(정무제2장관실 조정관): 자원활동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며 전반적으로 내무부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저희는 여성자원활동을 활성화한다해서 전국 249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통해서 현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여성자원활동으로 계속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길상 : 「다양한 근로형태의 개발·정착」의 문제는 각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고 논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사회 : 자원활동의 활성화는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다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김금래 : 65항 ㉔, ㉕ 번과 관련하여 손봉숙 소장님의 의견을 읽겠습니다. 정권 출범 당시 3명의 여성장관임용으로 여성계의 기대가 컸으나 현재 정무제2장관실만 여성장관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구청장, 여성시장 임용 등도 약간의 성의를 보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각급의회의 여성참여비율은 지방의회,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여성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여성을 위한 비례제도로 못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15대 총선에서 여당공천을 확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성공천 정도와 여성 전국구 할당 정도가 공약이행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㉔ 번의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 및 당직의 여성참여에 대해서는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기구 공약은 불이행됐고 여성당직임명도 획기적으로 평가할 정도가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 박우건 : 정치분야는 정당에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정책결정직의 여성기용은 이번에 채용목표제를 10대 과제에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몇명을 스카웃 하는 것보다 장기적 전망하에서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는 플러스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문제를

놓고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인다는 안과 채용목표제 안이 같이 병합되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통치자의 임명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김명숙 : 정무직은 별개로 하고 총무처에서 이번에 여성공무원 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의 보수적 경향으로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입니다.

▶ 사회 : 현 정부 출범 당시 3명의 여성장관이 탄생하여 '획기적'이라는 공약이 이루어지려나 했는데 금세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떤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부적절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데 금방 그 자리에 남성을 임용한 것은 또한번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 이정자 : 여성별정직이 대체로 일반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환조건에도 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박우건 : 아직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일반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배려를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 상·하반기에 한번씩 본인이 전직하고자 할때는 충분한 전직시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산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 :

66.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한다.

가. 교과과정의 성차별적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기부터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토록 지도한다.

나.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하고 국공립 연수기관에 평등의식 프로

그램 실시를 의무화한다.
다. 평등한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 등 성인 대상 평등의식 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라. 대중매체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박우건 :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정상추진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학년 이상 교과서부터 성차별적 내용을 개선했고 중학교도 2학년 까지는 개선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고등학교과정까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국공립 연수기관의 평등의식 프로그램은 완료단계는 아니지만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도 26개 국공립 연수기관에서 79개 과정에 약 12,0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숫자는 62.5%로 50% 이상을 지방 및 중앙연수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발간도 이 연수기관에서 연구·보급하고 있습니다. ㉔ 번은 여성개발원과 함께 부모역할훈련 사례집 등을 이미 보급하였습니다. 우리실에서 실시한 평등한 부부상 시장을 각종 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책자화하여 성인 부모역할에 관련된 여성단체의 교재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㉔ 번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성차별 대중매체 등에 나타난 성차별 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영애 : 정무제2장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66항이 전부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㉔ 번과 ㉕ 번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 내용이라든지 실시효과는 어느 부처에서 감독하고 계십니까?

▶ 박우건 : 우리실에서 국공립연수기관에 대해 1,2,3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연수기관까지 감독하여 실시 효과에 대한 내부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 그 효과가 크고 작게 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사회 : 개발원에서 강사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후 효과의 측정과 그 속도에 대해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 일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가. 현재 6천2백여개소의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4천개소로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



이정자 (전문직여성노동조합연맹 회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도록 하고 공공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교원탁아소를 설치한다.

다. 보육시설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라.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금을 손 비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한다.

▶ 김명숙: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초과달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정부재정아래서도 '97년까지 1조2천8백9십1억을 투입하여 65만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계획이 서있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 기업이 운영비의 80% 부담토록 하던 것을 50%로 완화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인건비의 5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설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인 규정을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낮추고 여러가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청사보육시설도 12월중 완료가 되어 아동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며 1월부터는 개소하고 인건비도 '98년까지는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 시책으로는 상당히 풍부해졌는데 그것이 동네에서 우리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 학생지도도 이번 10대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공약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68.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

가.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나. 성폭력피해자와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운영한다.

다. 대중매체 등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여 여성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김명숙: ㉞ 번의 성폭력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은 제정되었고 ㉜ 번의 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개소가 늘어납니다. 운영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원됩니다. 문제는 시설을 운영하려는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최영애: 저는 ㉜ 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66항과 연결하여 말씀드리면 성폭력특별법에는 예방에 대한 것이 국가의 의무로 주어졌는데 사실 사후대책에 관한 것도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밖에는 없습니다. 이 지원도 민간단체에서 복지부와 재경원을 방문하여 간신히 따낸 것이지 정부가 그냥 준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에 초·중·고 교과과정에 성폭력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필수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중매체의 폭력을 유발하는 여건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66항과 68항을 연결하여 보면 특히 예방부분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 저희가 정책건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 소장님께서서는 이부분에 대한 건의를 문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69. 우리에 적합한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착시킨다.

가. 미래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회교육을 강화한다.

나. 가족상담 등 서비스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한다.

다. 세대간 대화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박우건: 가족문화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부처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부처에서는 부모의 역할 교재 개발과 그동안 미진했던 사회교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김명숙: 현재 아동상담소와 부녀상담소가 37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내년부터 가족종합상담소를 구상하여 시책으로 추진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사실 69항은 굉장히 막연하고 실제로 소관부처도 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가족문화의 정

작은 앞선 선진적인 개념입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쯤 되면 구체적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한 것을 그대로 기록에 올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건의사항을 보충하여 정식 건의문으로 만들어 관련 부처와 청와대와 각 당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최영애: 사후대책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판·검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대학과 사법연수원의 프로그램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을 건의합니다. 또하나 피해자의 증거물 확보와 응급처치를 보건소에서 하기로 특별법에는 명시되었는데 보건소소장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 말합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모두 이 부분의 전문가이자 적극적인 열의가 있어 앞으로 나머지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회가 지난 11월 3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치드라마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마스크 모니터링 토론회 내용이다.

정치드라마 모니터 분석 결과

제4공화국, 코리아 게이트를 중심으로

전상금 (본회 마스크 모니터링 회장)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드라마는 사실의 재현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장감이 있어서 다른 매체를 통한 접근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드라마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번 정치 드라마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과거 청산 및 정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I. 서론

요즈음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접근을 꺼려 했던 우리 정치사의 예민한 부분에 과감히 손을 대고 있는 MBC '제4공화국'과 SBS '코리아 게이트'의 두 정치 드라마가 안방 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겪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역사이며 '10.26', '12.12'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이기에 부담감도 매우 크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오히려 사실만을 신중하게 다룰 수 밖에 없고 방송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커서 모처럼 좋은 드라마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드라마는 사실의 재현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장감이 있어서 다른 매체를 통한 접근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드라마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번 정치 드라마는 국민들의 정치

의식 고양과 과거 청산 및 정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나아가 이제까지의 멜로 드라마 일색에서 탈피하여 우리 드라마의 소재 영역을 넓히고 드라마의 장르를 다양화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양 방송사가 거의 똑같은 주제와 비슷한 기법으로 같은 시기에 방영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제작진들의 역사 인식이 돋보이는 모처럼의 좋은 작품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드라마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정치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므로 앞으로의 정국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여 균형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두 드라마에 대한 모니터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여성상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여성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활동을 펼쳐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마스크 모니터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매스미디어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인 TV, 그중에서도 사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드라마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꾸준히 모니터를 해왔다.

198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본 마스크 모니터회는 마스크의 영향력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마스크가 미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이번 정치 드라마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까지 본회가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TV 드라마를 계속 모니터링해 온 본회의 입장에서 시청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한 이들 드라마를 면밀히 분석, 평가해 보고 제작자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본다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 역량을 평가받고 활동의 입지를 넓혀 나가는 데도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II. 본론

1. 정치 드라마의 의미

양사의 정치 드라마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그가 현재 다루어지는 드라마의 중요 인물이어서 세인의 관심이 더욱 드라마에 쏠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드라마 자체가 갖는 흡인력이나 현 정치 현실이 기를 올린 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제작진이나 시청자 모두 바른 정치적 안목과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MBC '제4공화국'은 '유신 시절의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 묘사로 그 시대의 재현을 꾀하고 그를 통해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밝히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것'(MBC 가이드 95. 8)이라고 밝혔다. SBS '코리아 게이트'는 '일그러진 유신 시대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면서 비극적인 유신의 대단원을 암시하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제4공화국의 뿌리를 캐겠다'(SBS 매거진 95. 10)고 제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드라마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과거이면서 현재이기도 하다.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겪어 왔던 세월이고 또한 사건의

주인공들 대부분이 현재의 정치판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편의 드라마는 노련한 정치가들에 의해 대중 이미지 조작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청자의 흥미에 영합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며 편파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진실을 호도할 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제작진들의 역사 의식과 정치관, 그리고 어떠한 외압에도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앞서 몇편의 정치 드라마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처음의 기획과는 달리 어정쩡한 모습으로 사라져 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로서는 이번 만큼은 소신있는 정치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드라마는 드라마로서의 역할을 넘어 역사 교과서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유신 체제를 조선시대 이야기처럼 박제된 역사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나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 당시를 숨죽이며 저항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진실의 극히 일부 밖에 알 도리가 없었다. 그동안에도 뉴스나 신문, 잡지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간간히 진실의 일부가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실감할 수 없는 인간의 정서도 한몫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표현의 형식상 어떤 보도 프로그램보다 호소력이 있는 드라마는 실제 상황을 재현해 보여줌으로써 현실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기에 시청자에게 미치는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본다.

이번 정치 드라마가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을 국민들의 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역사 인식을 흐리게 하는 과오도 범할 수 있기에 양날의 칼처럼 제작진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한다.

2. 내용 분석

대상 프로그램인 MBC '제4공화국'과 SBS '코리아 게이트'의 모니터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였다. 각 드라마의 10회 방영분을 전회 녹화하였고 모니터링 기간 동안 11명의 회원이 매주 모임을 갖고 토론하였다. 신문 스크랩, 관련 자료

조사 및 PC 통신에 나타난 시청자 반응, 양 방송사의 홍보 자료 등을 역할 분담을 통해 수집 조사하며 드라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드라마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자료로는 조선일보의 '10.26'과 '12.12' 관련 기사 모음집을 참고하였다.

가. 사실성 여부

'제4공화국'이나 '코리아 게이트'에서 지금까지 방영된 내용들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을 장식했던 사실을 극화한 드라마이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의 큰 줄기는 왜곡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세한 상황 묘사에서 두 드라마가 차이를 보이는데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은 작가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중에서 10.26에 나타난 상이한 묘사만을 비교해 보았다. (표1 참조)

10.26 장면 묘사 예 (표1)

장면	제4공화국	코리아 게이트	참고 자료	비고
박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아산만을 내려다 볼 때	맨 눈으로 내려다 봄	쌍안경으로 내려다 봄	쌍안경 사용	조선일보 (79. 10. 28)
차지철 총상후 행적	방 밖으로 도망	방안 뒤편으로 도망	실내 화장실로 도망	제업사 합동수사본부 발표 (79. 11. 6)
차지철과 김재규가 다시 마주치는 장소	차지철이 방문 안쪽에 서 밖으로 나오다가 마주침	뒤편 뒤편에서 나오다가 마주침	실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마주침	상동
맨발이었던 김재규	욕분 앞에서 차에서 내린후 구두 신음	차안에서 박홍주의 구두 신음	박홍주가 미리 준비한 상의와 구두를 차 안에서 건네 받음	상동
김병수 원장의 박대통령 사망 확인	복부의 흰 반점	복부 흰 반점과 손목 시계	손목시계는 평범하여 흰반점으로 확인	상동
병원장과 보안사 통화	보안사 참모장과 통화 (예, 아니오, 예)	참모장과 통화 후 전 두환과 직접 통화	참모장과 통화 (예스, 노, 예스)	상동

이외에도 여러군데에서 사실과 다른 묘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드라마는 어차피 사실을 재구성하는 단계에서 표현의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표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엽적인 상황 묘사에 나타난 차이는 사실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진실의 변질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료 접근에 제약은 받는 본회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건의 진상을 흐리게 하는 과장이나 축소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월간 조선('95년 12월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사실 조사 및 실제 인물들과의 통화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사실의 변질, 인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를 하나 작가의 상상력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장면이나 대사, 혹은 상황을 압축시켜 보여주기 위한 극적 장치에 대한 진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드라마들은 처음부터 다큐 드라마를 표방했으므로 드라마적 구성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적 장치에 대해서는 진위를 묻기보다 제작진의 의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더 리얼하게 알리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흥미를 유발시켜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고자 함인지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드라마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여 즉흥적으로 고중도 거치지 않은 채 내용을 변경한 것은 드라마적 장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나. 배역 및 연기

이번 드라마는 현존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이고 시청자들도 그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시점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여서 배역이 타 드라마들에 비해 무척 힘든 작업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제4공화국'은 실제 인물과 닮은 연기자의 확보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코리아 게이트'는 '얼굴 맞추기'식의 기존 다큐 드라마 캐스팅 방식을 탈피 하겠다(SBS 매거진 95. 10)는 제작진의 의도대로 연기자들의 연기력과 분장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외모의 닮은 점이 정치 드라마의 본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청자들이 익히 아는 인물을 연기력 만으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다.(표2 참조)

주요 배역 (표2)

인명	직책	제4공화국 출연자	코리아 게이트 출연자
전두환	보안사령관	박용식	정종준
노태우	제9사단장	김기섭	김성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승현	최병학
장태완	수경사령관	이영후	김동현
박정희	대통령	이창환	독고영재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이대근	정한현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순	오승명
최규하	국무총리	김성겸	김진태
신현확	부총리	김진해	박규재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근형	김홍기
김영삼	신민당 총재	임동진	이영하
김대중	재야	최민식	민욱
김종필	공화당 총재	한인수	이정길

주요 배역들의 외모의 닮은 점 뿐만 아니라 말투까지도 비슷하게 처리하는 '제4공화국'은 연기자의 연기력을 이야기하기 앞서 시청자들 기억속의 인물들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반면에 인물을 특징짓는 말투와 사투리까지도 배제하고 인물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코리아 게이트'는 디테일한 묘사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전두환역의 박용식은 예전부터 너무 닮은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였을 만큼 닮았고 그 이미지에 힘입어 연기도 무난하다. 정종준은 내면 연기를 통한 인물의 재창조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인물에 미치지 못하고 연령의 차이도 극복이 안되어 동기생에 비해 너무 젊다. 노태우역의 김기섭은 시청자가 익히 아는 실제 인물의 말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역할에 생기를 넣으며 연기자로서 올바른 태도까지 보여준다. 김성원은 노태우역을 하기엔 나이도 많고 실제인물의 이미지와도 너무 동떨어져 어색하기만 하다. 또한 연기자는 일단 배역을 맡으면 어떠한 역이라도 충실히 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원은 역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여실히 보인다. 정승화역의 정승현은 무난한데 비해 최병학은 아무리 신군부에 의해 강제연행당하는 처지까지 빠지는 인물이라고는 하나 육참총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력하게 묘사되어 있다. 장태완역의 이영후는 중후함으로, 김동현은 박력으로 각자 돋보이는 개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김동현도 너무 젊어서 가뜰이나 군대 직급에 어두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런 면은 약간의 분장으로라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제작진의 성의가 부족함을 느낀다. 또한 그의 연기가 의외의 호평을 얻자 지나치게 비중을 싣게 됨으로써 육본측의 장성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박정희 역의 이창환, 독고영재도 박대통령 시해 사건 기준으로 보면 너무 젊고 차지철역의 이대근도 본인의 평소 연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한현의 연기가 더 설득력있다. 김계원역의 오승명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무심한 태도가 김상순에 비해 비현실적이다. 최규하역의 김성겸, 김진태는 두 사람 다 무난하나 신현확역의 김진태는 무척 강직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비해 박규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 실제 인물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김재규역의 박근형은 내면적 갈등을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김홍기는 과장된 몸짓을 보여준다. 김영삼역의 임동진이나 이영하 둘 다 실제 이미지와 떨어져 있는데 특히 이영하의 경우 당대의 최고 미남배우(PC 통신자 표현)를 캐스팅한 저의를 의심케 만든다. 김대중, 김종필역은 아직 비중이 그리 크지않으나 무난한 배역이었다고 본다. 한희당 평균 50여명(엑스트라 제외)이 넘는 출연자들을 일일이 간수하기는 무척 힘든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배역들의 연령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인 것은 급조된 상황때문에 분장으로나마 연령의 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을 소홀히 넘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장군역을 60대에 가까운 배우에서부터 20대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배우가 많고, 동료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동료로 나오고, 상사와 부하의 나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모습은 극적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어 세심한 배려의 부족이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드라마는 장면 전환이 유난히 많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추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타 드라마에 비해 연기자의 호흡이 짧고 섬세한 감정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연기력보다는 배역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며 각 장면들의 연결과 배치, 속도감 등 편집에 의한 완성도가 드라마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다. 내용 전개 방식

'제4공화국'은 제작 의도에서 '사실 속에 침전된 가슴 아픈 인간사를 최대한 부각한다'고 밝혔듯이(MBC 가이드 95. 11) 사건 속에 가려진 인물에 대한 조명으로 드라마적 요소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코리아 게이트'는 사건 자체에 비중을 두어 다규

멘타리적 구성에 치중하고 있어 두 드라마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4공화국'에서는 김재규 내연의 처 장정이에 대한 언급, 김재규의 꿈을 통한 김형욱 실종의 암시(제1화), 김재규와 박선호의 인간적 유대감(제2화), 이웃 사촌이었던 김오랑과 박종규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는 비극(제5화)을 보여주듯이 이와 같은 예는 사건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인간에 대한 제작진의 관심을 드라마적 구성으로 잘 살리고 있다. 매회마다 소재목을 통해서 전개될 내용을 예시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본다. 또한 중요 장면에서의 정지 화면과 흑백 처리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를 넘어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

'코리아 게이트'는 박정희 전대통령을 둘러싼 인물들의 동향 및 갈등의 소지와 주변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미국측 동향이나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의 제명으로 인한 당 내부의 분열 공작, 부마 사태에 대한 자료 필름의 삽입, 차지철 경호실장과 전두환 보안사령관과의 관계(제1부), 위킵(주한 미사령관)과 전두환의 갈등(제7부) 등 사건의 배후를 인물들의 감정에 동화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드라마 중간에 삽입된 '국회 국방부 국정조사 자료' 필름(제6부)도 실제 인물들의 모습과 그들의 증언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극적 재미가 있는 '제4공화국'은 재미 때문에 자칫 역사적 사실마저 극적 장치로 오해 받을 소지를 안고 있고 '코리아 게이트'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냉정한 시각이 시청자의 몰입을 거부하며 지루하게 만들기도 한다.

리. 내용 요약 및 점검

• 제4공화국

이 드라마는 곳곳에 인물들의 감정을 간결하게 집어 넣음으로써 극적 재미와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고 사건 묘사에 있어서도 동적이다.

제1, 2화(운명의 날 10. 26)에서는 주로 박대통

령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을 표출하며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정동 안가의 연회석에서 보여주는 김재규와 차지철의 불화 속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는 김계원의 모습도 설득력이 있고 김재규와 박선호의 인간적 관계에 대한 묘사도 너무 쉽게 엄청난 일에 동조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케 해준다.

3, 4화(오지 않는 새벽)에서 대통령 유고에 대비하는 정승화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여주는 동적인 묘사가 돋보이며 각하 서거를 말하면서 눈물짓는 전두환의 모습도 평소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하여 '테프콘 작전'에 돌입하는 미국측 움직임과 언론사에 진입하여 검열 지침서를 내미는 계엄군의 모습에서 극심했던 언론 통제를 드러내는 등 1, 2화에 비해 다각적인 조명을 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의 월권과 위법 한미연합사령관의 전두환에 대한 경고, 노태우와 전두환의 거사 일정 앞당김 등 12. 12를 향해 치달는 신군부의 움직임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5, 6화(역사의 역류)에서 다루고 있는 12. 12 사태는 신군부의 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진압군측의 무력함과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도피 행각, 아울러 장태완을 비롯한 몇몇 장성의 힘겨운 대응이 안타깝게 그려진다. 정병주와 아끼던 부하 최세창의 엇갈린 선택, 김오랑과 박종규의 관계도 드라마틱하게 엮어져 극의 재미를 돋우고 있다.

7, 8화(빼앗긴 봄)에서 정권 창출을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권정달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허문도의 대통령 만들기, 재벌들과의 유착이 그려지고 노골적으로 정권욕을 드러내는 전두환의 묘사에서 그의 성격의 일면을 보여준다. '3김'의 정치적 행보와 연행, 비상계엄의 확대 실시로 더욱 확산되는 학생 데모를 빌미로 움직이는 군의 모습과 광주 비극이 시작된다.

9, 10화(오월의 노래)는 광주 데모대를 진압시



키러 내려가는 제7공수여단의 지휘보고 계통을 도표로 보여주고 상황을 자막으로 설명하면서 광주 505 보안부대의 상황 보고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군대를 증파하는 신군부측의 움직임과 국보위 설치, 창당 준비 작업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 광주에서의 시민군과 계엄군의 무력 충돌을 당시 자료 필름과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이제까지 얼굴을 맞대고 지내왔던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고 부대를 이탈해 버리는 정웅 31사단장의 비통함이 신군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5월 27일 새벽 5시 계엄군 도청 진압을 끝으로 무고한 시민의 죽을 위에서 신군부는 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작전이었다고 자화자찬했음을 알려주는 자막이 올라간다.

이처럼 우리 현대사의 복잡다난한 사건들을 간추려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처음 의도된 '제4공화국'은 실종된 채 '광주 항쟁'까지 흘러와 버린 상황에서 본래 의도대로 돌아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제1화의 경우 시작하면서 소재목이 나오기 전에 보여준 궁정동 안가에서의 총격전, 김재규에게 선혈이 낭자하게 튀겨지는 장면 등은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었다. 2화의 끝부분인 정승화 연행

장면이 그대로 3화 앞부분에서 반복해 나온 것은 강조라기 보다 무성의한 편집의 단면이라고 보여졌다. 10. 26(제3화)이나 12. 12(제5화)에서 무력 충돌의 묘사는 한 나라 같은 군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자 하는 제작진의 열의가 공식적인 집계(사망 3명, 중상 4명, 경상 16명, 국방부 발표 79. 12. 25)에 비해 과다한 묘사를 하게 만든 것 같다. 제7, 8화 '빼앗긴 봄'의 경우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정권 창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소상히 기술하고 있는데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생략이 필요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대부분의 인물이 회화화되어 있는 가운데 아부의 웃음을 지으며 뽀뽀대는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전두환을 대하는 태도(8화)는 코미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해서 코리아 게이트의 주영복 장관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실제의 그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3김'에 대한 묘사는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일 것이다. 8화 마지막 장면에서 김대중과 김종필이 경황없이 연행되어가는 중에 김영삼의 당당한 도피 거절의 모습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9, 10화의 '오월 광주' 내용은 급조의 흔적이 뚜렷해서 오히려 진실을 축소 은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9화에서 '왜 하필 광주냐'는 전두환의 물음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대답을 알 것이다'라는 허화평의 애매모호한 대답은 그 부분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 대한 신군부의 태도를 비호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광주시민으로 나오는 연기자들의 연기도 어설퍼서 그때의 진실을 알리는데 역부족이었다. 광주 이야기는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이런 시청률 경쟁의 와중에 끼워 넣어 표피적으로 다룬 것은 무책임한 시도였다. 토요일 재방송된 9화 뒷부분에서는 화면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영기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심각한 방송사고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10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막이 빨리 올라가 미처 읽을 수도,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는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보여주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매회 마지막 정지 화면에 나타나는 '빅벨 옴로' 협찬 광고는 극에 몰입되었던 여태까지의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식 밖의 광고이며 크기 또한 너무 크다.

• 코리아 게이트

수감 중인 김재규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이 드라마는 '유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독백을 통해서 제작의도를 보여준다. '제4공화국'에 비해서 객관적 사실에 치중하는 이 드라마는 비교적 냉정하게 사건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사건 속에 가려진 물밑 작업을 소상하게 파헤치고 있다.

제1, 2부에서 미국측의 움직임, 신민당 분열,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의 여파, 차지철의 월권으로 인한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불안했던 정국을 보여준다. 더불어 박대통령의 26일 행적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를 간결하게 곁들이면서 궁정동 안가의 총격 사건까지 긴박하게 이어진다.

'하나회' 조직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는 3부에서부터 6부까지 묘사되는 12. 12 사태는 전두환의 월권과 그로 인한 정승화와의 갈등이 축을 이루며 인사조치 당할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으로 이어진다. 총장관저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노재현 국방장관의 행적에 대한 묘사가 집요하고 미국측의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사태 판단이 우리 정부측보다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명령 계통을 무시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는 신군부에 비해 국방장관의 명령없이 군을 움직일 수 없다는 윤성민 육참차장이하 진압군측의 맥빠진 대응 속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신군부측과 진압군측의 병력충돌,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

사이의 알력과 허위 보고, 명령 무시, 자신의 상관을 연행해 가는 부하 등 군 위계 질서의 무너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7, 8부에서 12. 12 후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의 행적이 소상히 그려지며 위법과 갈등이 노골화된다. 장태완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수탁이 역쿠데타에 대한 미국측의 협조를 타진해 보지만 거부되고 권정달 등에 의해서 권력 창출을 위한 'K-공작 계획서'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있다. 비상 계엄확대, 국회해산, '2김'의 연행과 김영삼의 가택 연금, 제7공수여단의 광주 파견,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의해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이 행해진다.

9, 10부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신군부의 정치적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 조직과 63년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던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의 행태를 추적한다. 박대통령 측근들 사이의 파위게임 속에서 커가는 전두환의 행적을 쫓아 79년의 12. 12 쿠데타가 우연이 아님을 파헤치고 하나회 군인들의 명단이 그들의 현 위치와 함께 공개된다.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전개되는 이 드라마는 사건 중심이다 보니 인물들이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세심한 부분 묘사가 결여되어 있다. 1부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태도 김계원의 반응은 너무 무심하고 연회석상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이 노골화되며 긴장감이 감도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태연하기만 해 '제4공화국' 김계원과 대조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박대통령의 사체를 확인하러 갔을 때 머리에 대고 쏜 권총에 맞은 사체의 얼굴이 너무 멀쩡한 것(2부)도 거슬리는 장면이었다. 영어 대사를 자막을 생략하고 동시통역의 방식을 취한 시도는 새로운 형식이긴 하나 그렇게 하려면 한국측 대사도 영어인데 동시통역을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미국인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측 연기자들은 대사를 책 읽듯하고 있어서 어색하고 영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의 흔적도 없어서 아쉬웠다. 정승화 연행 후 군

인들이 움직임이 양쪽 다 너무 정적이어서 상황의 긴박함을 전달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육참차장 윤성민의 여유롭고 차분한 대응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연기였다. 1, 2부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전개에 비해 5부는 거의 군 병력 동원없이 전화로 주고 받는 진압군과 반란군의 상황이 밋밋하게 나열되었다. 그러나 8부에서 보여주는 '광주 항쟁'에 대한 묘사는 광주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로 가는 길에 밟고 가지않으면 안되었던 과정으로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광주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고, 9, 10부에서 12.12 사태가 어느날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었다.

양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군인들의 두발이 너무 길고 자세도 군인답지 않아서 대충 만든다는 인상을 준다. 쿠데타와 같은 긴박한 권력 이동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내 직급, 조직, 명령체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젊은층이나 여성 시청자들을 위해서 군대의 직급, 군대 조직 명령 체통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이거나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었다더라면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더 있었을 것이다. '제4공화국' 9회에서 제7공수여단의 광주 파견에 관련하여 지휘보고 계통을 표로 보여준 것은 뒤늦게나마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준 제작진의 배려였다고 본다.

'코리아 게이트'에서 현재 출연하지 않는 연기자의 이름이 계속 자막에 올라가고 있는 것도 내용의 파행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세세한 부분은 챙기지 않음을 보여준다.

드라마 제작자는 역사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어느 한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건이나 인물의 양면성을 모두 보여주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 드라마가 선악의 대비로 제작진의 의도를 시청자에게 주입하는 성급함은 진실 자체를 전달한다는 사명감 보다는 일

시적이거나 후련함을 원하는 시청자의 욕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근시안적인 접근은 역사적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편파적인 시각을 굳히게 할 수도 있다.

3. 지나친 시청률 경쟁

대한민국 수립 후의 근세를 다루는 정치 드라마는 다루는 세월이 짧고 가깝기에 민감한 부분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드라마의 소재로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최근세사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사건인 '10.26'과 '12.12'에 대해서 MBC와 SBS가 방영시기 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진행시키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는 모니터하는 본회의 회원들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로 매회 다루는 사건의 양마져 보조를 맞추며 비슷한 속도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예는 우리 드라마 사상 처음일 것이다. 예전같으면 어느 한쪽에서 먼저 기획하거나 시작을 하면 양보하고 자신들의 기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요즘은 양 방송사의 태도를 보면 그런 미덕은 없어진지 오래인 것 같다. 수, 목에 방영되는 '제4공화국'은 토요일에 방영되는 '코리아 게이트'보다 시간적으로 한발 앞서 가면서 서로 간에 예습, 복습을 시키는 듯한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제4공화국'이나 '코리아 게이트' 둘 다 1979년 10월 26일을 전후로 시작되며 궁정동 만찬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이어진다.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은 드라마의 구성상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양쪽 다 이렇게 극적인 시작을 하는 것은 일단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놓고 보자는 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두 방송사의 과다한 경쟁이 문제로 대두되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KBS1에서도 '역사 추리' 시간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룬 것은 이런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 꼭 끼어 들어야 했는지 방

송사측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10월 18일(수) 방영한 '제4공화국'은 원래 21일(토)에 제1부가 방영되기로 이미 시청자와 약속한 상태에서 돌연히 일방적으로 그 날 방영키로 한 '전쟁과 사랑'과 시간을 맞바꾸어 버렸다. 이런 돌발적인 편성은 상대 드라마를 지나치게 의식한 처사로 사전에 알지 못한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청률을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코리아 게이트' 또한 28일(토) 오후 코리아 리그 농구 중계 방송을 갑자기 취소하고 MBC '제4공화국'의 재방송에 대응, 긴급 대체 편성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자사의 타 드라마를 죽이는 결과까지도 서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보면 양 방송사가 정치 드라마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진다. 두 드라마가 처음의 기획과는 달리 10부가 되도록 본래의 내용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류에 영합하여 표류하고 있는 모습도 소신있는 정치 드라마를 기대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처사이다. 정말 역사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함인지 시청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목적이 숨어있는지 의심스럽다. 과다한 경쟁은 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음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4. 언론 보도 태도

'제4공화국' 1, 2부와 '코리아 게이트' 1, 2부가 방영되고 난 후 언론의 방송 연예판에는 두 드라마에 대한 평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왔다. 정치 드라마가 가지는 무게나 내용은 도외시하고 주로 두 드라마의 시청률을 비교하면서 '제압' 혹은 '한판승', '판정승'이니 '사운 건 대결' 등의 표현으로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4월 방송 3사가 자체 시청률 조사 폐지를 선언하며 보인 무한 경쟁을 마감하려는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주중과 주말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무시한채 단순 비교한 것도 무리가

있지만 시청률 조사 자체가 공신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내 시청률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 코리아'에서 서울 지역만 275가구 380여대의 TV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다는데(95. 11. 13 중앙일보) 대상 가구수가 적어 전체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수치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는 방송사나 그것을 부추기는 언론이나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다행히 처음의 반응과는 달리 보도 태도에 대한 자성의 소리도 들리고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차분하게 내용에 대한 고찰 또는 정치 드라마가 갖는 영향력 등에 대해 사설을 통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신문 독자가 곧 드라마 시청자인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을 바람직한 논의의 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 진실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언론에서의 언급이 단순한 우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왜곡이나 편파, 미화 등에 대해 소상히 반응을 제기하면서 사실 여부의 판결, 정치적 파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등으로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리라고 본다. '신동아'(12월호)나 '월간 조선'(12월호)에서 두 정치 드라마가 갖는 폐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것은 좋은 예라고 본다. 이러한 논의가 곳곳에서 활발히 될수록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도 고양되어 진위의 판별은 국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비극 또한 되풀이되지 않게 될 것이다.

5. PC 통신을 통해 본 시청자 반응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반응을 PC통신(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들 두 드라마에 대해 시청자의 관심과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 방송사를 통하여 수많은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이들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과 의견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중 20%를 웃도는 비율이 이들 두 드라마에 대한 의견이었던 점으로 시청자의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MBC는 천리안의 'TV속의 TV' MBC 옴브즈맨 프로그램 비판(우체 이런 일이)과 MBC에 대한 제안(이런건 어때요), 그리고 옥의 티 코너를 통하여 시청자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하이텔은 MBC 옴브즈맨 코너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SBS는 천리안의 방송연예 부문에 'SBS-TV 코리아 게이트' 코너를 따로 개설해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코리아 게이트 코너에서는 제작의도, 드라마 내용 소개, 출연진 소개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유 게시판, 옥의 티, 출연진에게, PD 및 작가에게, 시청소감 코너 등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중 시청소감코너 하나에만도 11월 18일 현재까지 25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다. 하이텔에는 옴브즈맨 'TV를 말한다'의 프로그램별 의견 중 교양/드라마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 나타나는 의견들을 대별해 본 결과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제4공화국'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방송 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서는 배역에 대한 의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다.

두 드라마에 대한 의견 중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0. 26, 12. 12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데 대한 긍정적 평가
2.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를 주도하고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에 대해 준엄한 심판 요구 및 장태완에 대한 높은 평가
3.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우려
4. 두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평가
5. 제목과 내용의 괴리 지적
6. 의상, 소품의 고증 미흡에 대한 불만
7. 방송시간에 대한 불만-갑작스런 시간 편성 변경(재방송 포함)
8.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한 지나친 광고 지적-뉴스시간을 통한 홍보, 야구중계방송 중, 타 프로그램 방송 중의 빈번한 안내 자막

III. 결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운명이 극과 극을 달리는 갈림길에서 표류했다는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 보며 시청자들은 이제 더이상 역사의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정치가 일반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통념을 깨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은 이 두 드라마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를 높이 평가하게 하는 부분이다.

'제4공화국'이나 '코리아 게이트' 둘 다 많은 시청자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청자들의 관심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진실에 목말라 했었는

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정치드라마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더욱 정치 드라마는 사실에 입각한 바른 역사 인식으로 시청자들이 역사적 안목을 기르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의도는 팽개친 채 '비자금 사건'으로 형성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오히려 여론을 부채질하듯 고조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급조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정치드라마가 국민의 역사인식 및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아 온 본회로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 두 방송사의 정치드라마에 대해서 실망 또한 적지 않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MBC와 SBS 양사의 사운을 건 정치드라마는 두 방송국의 소모전 양상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드라마의 발전과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제까지의 정치드라마 분석결과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번 정치드라마는 그동안 우리 드라마들이 보여 왔던 소재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떤 내용이라도 다양하게 드라마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 드라마가 소재 빈곤에 허덕이며 남녀의 삼각관계 속에서 맴돌던 풍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소재의 발굴로 다양한 모습의 드라마를 계속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획의도와 그 내용은 바람직하나 양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진실자체를 전달하려는 사명감보다 현 정국과 시청자의 욕구에 편승하여 처음의 제작의도를 도외시킨 채 표류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경쟁은 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정치 드라마를 하는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고 정치권에 의해 이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드라마의 사전 전작제 도입으로 처음의 기획의도대로 작품성을 갖춘 드라마가 제작되어야 한다.

- 현존하고 있는 인물을 실명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당대에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인물을 묘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 만큼 실제의 인물을 왜곡묘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 드라마적인 극적 구성이 돋보이는 '제4공화국'은 역사적 사실마저 극적 장치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코리아 게이트'는 시청자의 몰입을 거부하는 냉정한 시각으로 지루한 면이 있다. 배역 및 연기, 디테일한 면에서는 '제4공화국'이 '코리아 게이트'보다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고, 사건 자체를 다루는 솜씨는 '코리아 게이트'가 돋보인다.

- 두 드라마에 대한 처음의 언론 보도 태도는 양사의 시청률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후 언론 자체의 자성의 소리와 함께 시청자를 드라마 본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고양을 위해 바람직하다.

- PC통신에 나타난 시청자 반응을 볼 때도 정치드라마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과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앞으로의 제작방향에 반영했으면 한다.

- 이번 정치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제작의도를 성급히 제시하고 시각을 한 쪽으로 몰아 어느 한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상을 주었다. 사건이나 인물의 양면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판단은 시청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치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적 안목과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드라마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제4공화국, 코리아 게이트를 중심으로

김기태 (서강대 강사, 언론학 박사)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는 우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과 사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숨쉬고 있었던 인물들을 역사평가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깊어치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오늘의 뒤뜰린 정치현실에 대한 연원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1. 머릿글 : 정치드라마속의 역사와 역사의 드라마적 요소들

우리는 지금 드라마같은 "역사"와 역사같은 "드라마"를 보고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가까운 역사의 이야기와 장면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만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역사가 지니는 드라마적 요소의 무게를 오히려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고 현실이라고 하기엔 다소 먼 듯한 그 시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신 정권하의 터널에 들어 있었던 세대와 그 이후에 태어났거나 철이든 세대가 드라마를 보는 감상도 다르고 그로부터 입게되는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도 다를 터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가 하나의 역사교과서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왜곡된 역사인식이나 특정 세력 또는 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해서 방송되는 것 자체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논의되고 밝혀져야 할 역

사적 과제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 그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규명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미루어 왔다가 보다는 오히려 덮어두고 가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힘에 의해 봉합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려져야 할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베일 속에 감춘채 세월만 보내다가 청산되지 못한 수많은 과거들이 불거져서 결국 터지고야 마는 그때마다 우리의 망각습성을 탓하곤 하던 과오를 범하는 것보다는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역사는 논의되고 밝혀지고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는 우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과 사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숨쉬고 있었던 인물들을 역사평가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깊어치를 하고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는 바이다.

더욱이 오늘의 뒤뜰린 정치현실에 대한 연원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규명이나 평가작업을 마치 어느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단죄를 위한 수단으로 몰아가거나 반대로 무리한

정당화 또는 불필요한 영웅만들기 수준으로 전락시켜서는 곤란하다. 만약 드라마 자체가 애초에 그런류의 조악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실패한 드라마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적 맥락속에서 정치사회학적 흐름과 구조를 밝혀내고 그안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드라마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역사적 비밀들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오는데 익숙해 있다. 밝혀져야 할 그 역사적 사건과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픔과 슬픔 그래서 번져가는 고통과 분노, 이 모든 것을 후세의 평가로 미루고 덮어두기를 강요당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발제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정부가 5.18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 낼 수는 없으나 이 드라마들과 그런 정치적 결정 사이에 무엇인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가 정치 또는 최근세 역사 드라마로서의 시기적 적절성이나 여론환기를 위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에 대해 지적되어온 많은 문제점이나 한계까지를 무마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류의 정치드라마가 말야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할때문에 지켜야 할 요구사항도 훨씬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들 드라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기에는 아직도 방영 초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부당스럽다. 게다가 방영 초기 도입부분에 대한 논란도 이제는 서서히 사그러들면서 다루는 대상도 본격적인 유신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드라마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동안 방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아울러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당부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

램이다.

2. 정치드라마 속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차례 양사의 제작진들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증언에 의거해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이들 프로그램이 제작될 것임을 천명해 왔었다. TV드라마 속에서 역사가 왜곡되면 실제 역사가 왜곡된 채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는 현재 까지도 실존하고 있는 많은 인물과 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더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사실상 TV드라마 속에서 아무리 생생한 기록과 증언이 확보된다고 해도 완벽한 재현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지도 모른다. 드라마라는 장르가 우선 허구적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데다가 기록이나 증언 자체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까지를 감안하면 정치드라마의 왜곡과 재해석 또는 주관적 입장 중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사실상 그동안 방영된 부분만 가지고도 당시의 실제상황과는 차이가 난다고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대단히 많은데 제작진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않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 본인이 직접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오기도 하고 관련 단체나 기관 단위로 문제를 제기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다루는 드라마는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제작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애초에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만들지 않은 이상 부분적인 창작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셈인데 여기서

작가나 연출가의 분명한 역사인식과 정치사회적 구조속에서 시대를 읽는 안목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장면과 출연자들의 세부적인 언어 구사 등을 철저한 기록과 고증에 입각해서만 처리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꼭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본다. 그것은 다큐멘터리이지 드라마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드라마라고 표방한 이상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히 드라마인데도 많은 시청자들이 실제 역사적 현장이나 사실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거나 그대로 믿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점에서 다음과 같은 아쉬움과 앞으로의 제작과정에서 유의해주었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주제와 소재를 실제 역사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실로 삼았을 뿐이지 있던 그대로의 역사를 정확하게 재현하는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TV화면을 통해 전달되어오는 드라마 속의 정치인, 정치세력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외모나 습관 등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인물과 유사한 인물을 캐스팅하는데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은 실제와 똑같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오히려 정치인의 외모나 언사와 같은 부분 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경험 또는 독특한 습관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개인들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거리 차원으로 국소화하기 보다는 그들이 속한 일정한 세력과 집단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구조적 차원으로 확장했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개인의 이야기는 극적 요소를 가

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부각시킨 일부 배역이 지나치게 영웅시되어 본말이 뒤바뀐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셋째는 아예 화면 속에서 사실 재현이 아니고 가상 또는 상상적 창조인 경우 이를 밝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제작과정에서 기술적 처리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표현하는 수도 있겠고 직접 자막이나 해설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정치현상을 정면으로 다룬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데 기울이는 노력보다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는 작업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앞에 가로놓이는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그 장벽을 넘어 진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곧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진에게 당부하고 싶은 주문이다.

3. 역사속의 드라마적 요소들

우리 역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드라마 대본이 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극적으로 흘러왔다. 특히 이번 드라마들의 무대였던 유신시대는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담담한 경험담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드라마로서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과 반전을 거듭하고 세력간 싸움이 치열하며 그 속에서 음모와 술수가 넘실대는 그 시대는 차라리 드라마 소재로 가득찬 보고라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장기집권의 군부세력이 정당성을 잃은 정권연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건강한 시민과 지식인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그들의 마구잡이식 횡포에 어처구니없어 했는가? 그런 사실과 사건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신시대를 다룬 이번 드라마 뿐 아니라 제1, 2, 3 공화국 시리즈 정치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우리의 최근세 정치사회적 역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 소재라고 말이다.

그렇다고 역사를 다루는데 드라마라는 장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사는 다큐멘터리로 분석, 평가하는게 좋고 드라마로는 역사의 향기를 단지 느끼게 던지는 소재로만 활용하는 새로운 창조적 작업영역으로 남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다만 역사를 재조명하고 감추어진 역사의 베일을 벗기는 일에 최적의 장르가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적어도 지금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드라마든, 다큐멘터리든, 아니면 뉴스나 영화든 앞으로는 훨씬 질적, 양적으로 풍부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방송은 드라마의 소재를 지나치게 제한된 범주내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흔히 이런 현상을 시청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하곤 하지만 이번 정치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치, 사회적 주제와 소재 선정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드라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를 방송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도 앞장을 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정치드라마의 한계와 문제점

정치드라마, 그것도 최근세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가지 제약요



소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제약이 아마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인물이나 정당 또는 세력들이 실존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드라마의 등장인물 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모두 중인의 자격으로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최근세사는 평가나 분석을 뒤로 미루고 훌쩍려진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 다루는 것이 공정한 역사 심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역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쪽이나 평가를 하는 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관점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렇듯 정치드라마는 장르 자체가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드라마는 방송사간 과열경쟁 등이 작용해서 보다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소재나 주제 선택에 있어서의 회소성이나 시의 적절성으로 인해 정치드라마의 편성, 제작 자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아직 드라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개선의

정치드라마의 현실과 미래

제4공화국, 코리아 게이트를 중심으로

이 두 드라마는 일시적 카타르시스속에서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은 그대로인 채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의 제작의도가 역사 시대의식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조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남는 자기반성의 고리를 남겨두었으면 한다.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방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지적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받아야 할 부분은 연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두 방송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방송 소재를 가지고 마치 사생결단을 하듯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물론 비슷한 소재와 시기를 선택했지만 다루는 방식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작진의 구성이나 제작 및 홍보과정을 미루어 볼 때 변명으로 들리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차원 높은 경쟁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준높은 드라마가 생산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자리에 나와계신 양 방송사의 제작사령탑들께서 이 점에 유의해주셨으면 한다.

여기서 지적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양방송사의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첫째, 역사 또는 정치드라마이지만 역사적 진실 규명보다는 사건 또는 사실 반추 수준에 머물러 단지 카타르시스 해소 정도의 효과 밖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 극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당위에 지나치게 얽매어 꼭 필요한 부분과 가볍게 처리해도 될 만한 부분이 오히려 뒤바뀌어서 사건의 흐름을 읽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욕만을 내세워 필요 이상의 잔인한 폭력장면이 자주 삽입되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준비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사소한 실수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방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닌 장면이나 인물묘사에 있어서의 허구나 오류는 제작진의 불성실한 제작 태도이거나 시청자를 무시하는데에서 비롯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신문기사의 문제점도 들 수 있다.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겨우 1, 2회분 밖에 방송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률 수치를 들먹거리며 승패를 가리는 식의 보도태도는 방송사의 필요없는 경쟁심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후 대부분의 신문칼럼이나 방송평 난에는 이 드라마들의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비난하고 있다.

5. 맺음글

방송위원회는 정치드라마가 유의해 주어야 할 몇가지 내용을 담은 일반권고를 공개리에 발표함으로써 두 드라마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사 논조도 정치드라마가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지도 모르는 것가지 우려들을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보도내용은 두 드라마의 패배나 역기능을 지적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진들을 아예 폭도나 환각에 빠진 불순세력으로 표현한 기사도 있었다.

용어의 선택이 다소 거칠기는 했어도 대부분 이해가 가는 지적들이었다. 앞으로는 남은 방송분을 제작할 때는 이런 지적들이 잘 반영이 되어 역기능적 폐해가 최소화되어서 이 두 드라마가 지니는 정기능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역사 재평가 작업의 의욕을 꺾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아직도 밝혀져야 하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숨겨진 역사를 가득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는 계속해서 이런 류의 창작물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들은 차분하게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숨은 역사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역사발전으로 가는 길과 다름아니다.

사 회 : 이연숙(본회 회장)

참석자 : 김기태(서강대 강사, 언론학 박사)

김세중(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우광(SBS TV 제작국장)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MBC TV 제작국 부국장)

이경순(방송평론가)

이호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상금(본회 매스컴 모니터회 회장)

▶ 사회 : 궁금한 점이 많지만 그 중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있어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드라마에서 5.18을 다루자마자 5.18 특별법이 제정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에 가깝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방송국에서 나오신 제작국장님께서 발제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광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우광 :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제작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자금 정국에 편승해 드

라마가 원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원래 계획에는 제5공화국이 10부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드라마 구성상 별로 내용이 없어 8부에 출범하는 것으로 수정 방영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시류에 편승해 비자금 정국에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회 : 두 방송국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방송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훈 부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이병훈 : 사실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고소 사태를 예상했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들이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작을 함에 있어 왜 좀 더 성실하게, 고증을 철저히,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비가 불성실했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제 1, 2, 3공화국에 이어 제4공화국의 방영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작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의 한계라고



이연숙 (본회 회장)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인쇄 매체의 항의, 예를 들면 월간조선 39개 항목, 허화평씨와의 인터뷰, 작가와의 인터뷰 등은 불만스럽습니다. 원래 4월 개편에 맞추어 방영하기로 했으나 유보 후 6월경에 결정되어 급히 준비하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96년 1월부터 방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SBS의 '코리아 게이트'를 의식해 가을 개편에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초에는 10. 26만 방영하고 10월 유신을 방영하기로 했으나 12.12, 5.17, 5.18을 차례로 다룬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수렴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5.18의 방영을 놓고 많이 고민했으나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에 기획해 만든 탓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점은 인정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내주신 비판, 격려, 관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 사회: 나와주신 분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 김세중: 저는 이 드라마가 실명이고 동시대인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개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판단 규명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들 내용은 헌법재판소식의 판결을



김우광 (SBS TV 제작국장)

하고 있어 커다란 논쟁거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4공화국 첫장면으로 미국 CIA가 한국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재규를 부추기는 듯한 장면은 한미 양국 관계상 엄청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2.12사건이 있기전 전두환측이 정권 재창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개되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검찰 조사결과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나친 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SBS 코리아게이트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5.18이후에 허깨비가 되어 할일이 없다'는 대화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의 언표(言表) 하나하나가 커다란 역사적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논쟁적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드라마를 드라마로 받아들이지 않고 논픽션 다큐멘터리를 재현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다큐드라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큐드라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MBC의 제4공화국 첫머리에 "이 드라마는 생생한 증언과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는 자막을 넣고 있는데 이보다는 차라리 드라마의 요소를 가미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구성되는 드라마임을 밝히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명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느낀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역사연구물이 순수한 과학적 인식으로 사실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역사소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추할 수 있는 심성, 양식을 재구성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술적 창조물이고 이 두가지가 반드시 진실과 허위로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소설의 장점은 사실성보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때문에 역사적 연구물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큐드라마는 역사소설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드라마가 일반 다큐멘타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사실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 보다는 기록이나 사실성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해석, 그 시대를

살면서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내적 갈등이나 의식의 흐름 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를 저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외의 재미나 종합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단지 동적인 화면으로 재구성하는데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두 드라마가 다 결론을 제시해놓고 이에 입각해 선행사건을 설명해 나가는 결과론적인 해석의 한계, 즉 12.12, 5.17, 5.18의 무게 때문에 제4공화국이 평면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시청률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인 해석 때문에 유신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4공화국의 성격, 내적 모순을 미리 밝힘으로써 12.12, 5.17, 5.18 같은 시대로 연결될 수 있는 내적소인을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신시대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평면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또 개인들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수 엘리트들은 역사적 선택과 책임에 역사해석의 키를 맡기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가 사회성원의 정치의식,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이병훈 (MBC TV 제작국 부국장)



김세중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대해 두 분의 발제에도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정치, 역사의식,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고양시키는데 공헌을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높은 반응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회의 엄청난 힘,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발가벗겨지는데서 오는 카타르시스, 그리고 드라마의 극적 재미 등이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의식 고양의 소재나 자원은 될 수 있으나 정치의식의 고양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4공화국, 12.12, 5.17, 5.18에 대해서는 다 알았고 단죄했으나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가상적, 허구적인 역사인식 속에서 실제로는 구조적,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 이미지의 영역에서 해소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건전한 시민의식, 역사의식, 정치의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는 몇가지 전제와 조건을 고려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가 사회 전체에 자기성찰의 계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해 조용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일시적 카타르시스속에서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은 그대로인 채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의 제작의도가 역사 시



이경순 (방송평론가)

대의식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조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남는 자기반성의 고리를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 이경순: 한 마디로 올해는 TV 드라마의 해였습니다. 연초 SBS의 '모래시계'는 드라마의 차원을 한단계 높였고 '코리아 게이트', '제4공화국'의 방영은 TV의 꽃은 역시 드라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같은 문제를 정통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면 정확한 사실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회여론이 형성될 만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로 제작된 강점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불륜일색이었고 또한 방송사의 변명은 늘 시청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상투적인 변명이었으나 이 드라마와 같은 정치 드라마의 히트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 드라마 소재의 확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가 그 기능을 유기한 점은 물론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나 방송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의 개인의 영달, 외압에 대해 스스로 몸조심하는 오랜 관행때문에 지금까지 진실로부터 차단당해 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망이 두 드라

마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므로 언론인들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호성: 저는 사실을 기초로 하는 드라마에서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낱말의 사실을 파헤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역사를 보는 눈은 진실로 직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군대조직이나 하나회 등 개개의 사실은 간과되더라도 의미를 추구,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최근의 역사적 규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봅니다. 89년에 약간의 작업이 있었으나 그 뒤로 묻힌 상태에서 드라마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제시한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들 드라마를 짜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오히려 고도의 정치기술로 옹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쪽의 편향된 시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신군부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긴 안목에서 보면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좀더 지난 후에 충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기, 또 최근의 역사를 너무 빨리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 잊혀지고 진실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여러 측면의 사실, 시각을 제시하여



이호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놓는 것이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자의 시각뿐 아니라 반대편의 입장도 고려해 균형감각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작진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현직대통령에게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이해하나 편향된 시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조적인 관점과 시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군부도 꼭두각시일 수 있고, 민주화, 야당세력도 중요하므로 그런 쪽의 힘-역작용이 반영되어서 역사라는 것이 몇 사람에게 의해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5.18의 방영은 방송사의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방영될 내용은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사회: 잘 들었습니다. 발제한 두분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두 방송사의 관계자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 전상금: 모니터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허화평씨의 인터뷰까지 고려한 것도 양쪽의 입장이 상반된다해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전상금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 회장)



김기태 (서강대 강사, 언론학 박사)

진행될 때 국민의 역사인식과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노력으로 장을 펼쳐놓았는데 여러분께서 미진한 부분들을 많이 보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기태: 토론자들이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해 주셔서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다큐드라마라는 것이 생소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큐멘터리와 다큐드라마의 차이를 보면 다큐멘터리는 현장 필름을 상영하는 것이고 다큐드라마는 배역을 써서 있었던 사실을 그려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우광: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지가 너무 나약하지 않느냐는 측근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분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것이 고민입니다. 저는 정치드라마의 정의는 동시대의 정치상황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 '모래시계'로 시작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므로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드라마로 채널의 무게나 중량감을 의식한다는

소박한 점에서 '코리아 게이트'를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정치드라마는 화제성으로 인해 채널의 중량감이 주어지므로 시청률에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역사적 해석이나 극적 상상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에 충실하자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담히,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확인은 사건의 본질, 큰 맥락의 흐름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드라마의 저널리즘 기능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송관계자, 시청자가 모두 미숙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방영하게 된 점이 부담스럽고 몇몇하지 못한 점 사실입니다.

▶ 이병훈: 여러가지 지적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되었다'는 자막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 결론적인 방법인식으로 그뒤의 평면론적 구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야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많이 잘려 나갔습니다. 제작과정에서의 현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밀한 시각, 심층된 시각에서 허술했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 우리의 역사를 정당한 방향으로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근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영상이라는 강력한 매체에 의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태도를 확고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관련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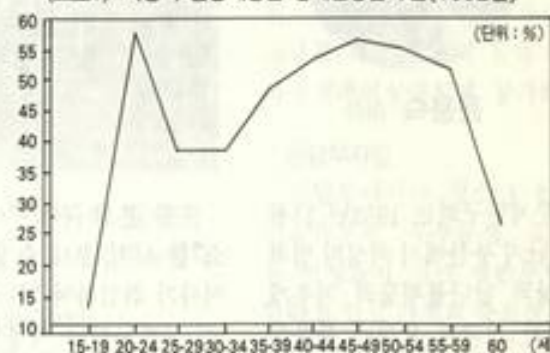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세~34세 연령층에서의 참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크게 낮은 소위 'M자형'을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5세~34세에 특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결혼에 따른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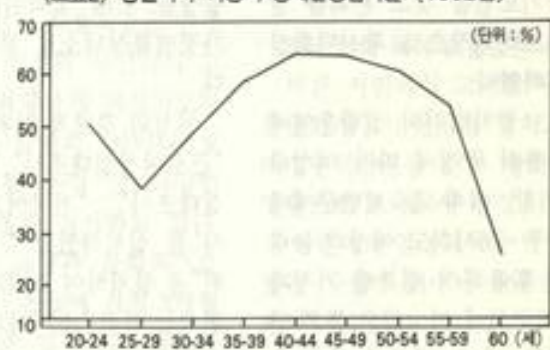
흥미로운 사실은 학력별로 구별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연령별로 'M자형'을 보이는 경우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에만 관찰된다는 것이다. 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24세에서 70%대, 25세~29세에서 50%대를 보이다가 30세이후부터는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25세~34세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대학 학력의 여성에게는 관찰할 수가 없었다. 대학 학력의 여성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여성을 위한 인력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이주호 박사, "여성인력의 수급과 개발",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시장간의 연계강화, 1995년 10월 한국여성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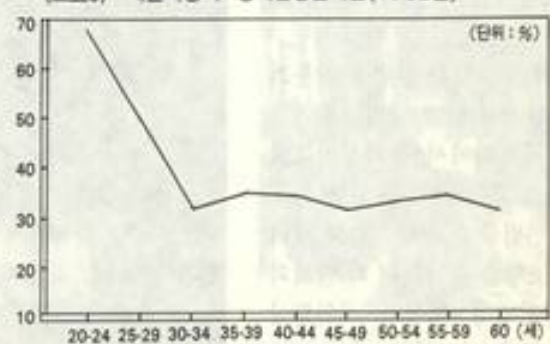
〈도표1〉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1992년)



〈도표2〉 중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92년)



〈도표3〉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992년)



또 매체별로 여성언론인 비율도 차이를 보여 신문은 25%로 가장 낮았고 라디오 48%, TV 43%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개혁으로 짐 무거워진 베트남 여성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으나 이 나라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도이 모이'로 불리는 경제개혁으로 중앙계획체제가 사라지고 점차 시장경제가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과거의 수입으로는 엄청난 물가고를 감당할 수 없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전쟁으로 19살에 청상과부가 된 43세의 간호원 호아는 중풍을 앓는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봉급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요즘은 부업으로 한 노인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호아는 "도이 모이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할 자본이나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젊고 건강하고 자유롭기라도 해야 한다. 나같은 사람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달리 할만한 일도 없다"고 한숨을 쉰다.

수십년에 걸친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어 특히 여성가장이 많은 베트남에서 이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갖고 일해왔으나 요즘에는 직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적 압박이 점점 커져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호아의 딸 한 등은 사환으로 한달에 15달러를 벌어들여 어머니를 돕고 있으며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등은 그러나 신문에 난 기업의 구인광고를 보면 예외없이 남자들을 선호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식당이나 가라오케의 호스레스 정도"라고 좌절감을 보였다.

하노이에 있는 여성연구소의 레 티 소장은 법이 보장한 남녀평등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교육도 덜 받고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적은 여성들은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애당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법적보호장치가 때로는 미흡하고 때로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즉 고용주들은 4~6개월씩 출산휴가를 갖고 아기가 아플 때는 결근할 권리도 갖는 여성 근로자들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으로 인한 갈등은 최근 10% 이상으로 급증하는 도시 이혼률과 증가하는 매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8%로 정부 당국은 오는 2천년까지는 이를 20%로 끌어올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으로서는 최고위 공직에 있는 구옌 티 빈 부통령은 베트남에는 여권운동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여성들은 전통적 가정생활과 직업을 병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젊은 여성들도 대부분은 남자가 부업에서 요리하는 등 급격한 역할변화를 겪기보다는 자신이 집안 일과 직장 일을 모두 떠맡는 편이 더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여성들, 성차별 대기업에 거액소송
직장내 성차별이 관행으로 통하고 있는 일본에서 6명의 여성이 봉급과 승진에서의 차별을 이유로 고용주인 대기업을 상대로

1억7천만엔(13억6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무역회사인 가네마쓰 그룹의 직원인 이들 여성은 자신들이 저임직종으로 밀려난 데 대해 손해배상과 소급분 임금으로 이같은 거액의 소송을 낸 것.

일본에서는 지난 86년 고용평등법이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직종을 처음부터 차별해 몇년만 지나도 같은 시간동안 일하는 여직원의 봉급이 남자에 비해 훨씬 적게 마련이다.

가네마쓰 그룹의 경우 여직원들은 거의가 사무직에 배치되고 있으며 남자들은 전담이 빠른 경영 부문에서 일한다. 그 결과 27살자리 남자 직원은 나이가 두 배나 되는 여직원과 같은 봉급을 받으며 입사 후 3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월평균 50만엔, 여성들 30만엔으로 봉급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출장수당이나 판공비 등 짙짙한 임금 외 수입을 올린다.

원고들은 이 회사에서 13년에서 38년까지 일한 중견, 원로 사원들인데 이들은 당초 법정까지 사건을 끌고 올 생각은 없었지만 회사측과의 협상이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소송 당사자중 한 명인 기무라 아쓰코는 "우리가 봉급을 반만 받는다 해서 우리가 일을 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퇴직할 때 얼마나 큰 차별을 받게 될지 생각하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스미토모 그룹 산하 3개회사에 근무하는 9명의 여성이 같은 이유로 회사측에 4억3천만엔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한 변호사 단체는 최근 입사시험중 면접을 치르는 여성들에게 입고 있는 속옷의 색깔이 무엇이나, 남자친구와 동거하느냐 따위의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폭로, 여성들이 동등한 근로자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4년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 여성들의 취업기회는 점점 줄어들어 같은 명문대학 출신이라도 남자들은 쉽게 원하는 직장을 얻는 반면 여자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하위직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번째 직장이 대부분 평생 직장으로 연결되는 일본에서 잘못된 출발은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과 건강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화여자 간호대학 교수)

여성은 전생애를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자유를 가지며, 건강과 생식능력에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특히 여성의 건강은 생식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I. 여성건강과 문제점

여성은 전생애를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자유를 가지며, 건강과 생식능력에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와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의 건강은 성차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생식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여성의 보건현황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

1. 여성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남성과 비교하여 불평등하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이 권리는 여

성이 모든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핵심이 된다. 인간의 안녕상태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며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은 여성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 건강 모두를 포함하며 그들의 건강은 생물학적 상황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건강과 안녕에 있어 여성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있어서 여성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간의 성차에 따른 불평등으로 보인다.

여성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의 전생애를 통하여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평등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여성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남성과 평등하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 건강문제에 직면하여서는 남성과 경험을 달리 한다. 즉, 여성의 빈곤과 경제적 의존성,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남성에 의해 받는 폭행,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 및 차별,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소외 등은 여성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영양면에서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위생적인 시설에 많이 노출되며 안전한 식수부족, 부적절한 주거상태, 가사노동과 직장업무로 인한 파로 등으로 여성의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최상의 건강만이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근본이고, 여성자신에

의한 생식력의 조절권리의 이행은 여성의 힘(세력)의 근원이 된다.

3. 여아에게 제공되는 영양 및 의료서비스 제공은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아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이 차별은 미래의 여성건강과 안녕에 위협이 된다. 어린 여성의 조기결혼, 임신, 육아와 같은 강요된 상황은 어린 여성으로 하여금 고위험에 처하게 한다.

청소년기의 여성들은 성장 과정에서 남성보다 영양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한다. 여성은 성과 생식에 관련된 보건정보 및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이 부족하여 생물학적 및 정신사회학적으로 남성보다는 성폭행, 성학대 및 매춘에 심각하게 노출되며 미숙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성적 관계를 갖기 쉽다.

조기의 성에 대한 경험은 의료서비스와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조기임신과 HIV 감염, 기타 성병 및 불안정한 임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어린 나이에 아이를 기르는 책임은 그들 자신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에 있어 저해 요인이 된다.

또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나 고용의 기회를 막게 하며 따라서 질적 삶을 저해하게 된다.

남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거나 성 및 생식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남녀가 다같이 책임을 공

유하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HIV/AIDS,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 및 성폭행에 의한 감염은 여성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소녀나 젊은 여성은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 및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HIV/AIDS에 감염된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남녀관계에서의 힘이나 사회적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파를 막아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HIV/AIDS의 결과는 가정내에서 어머니, 돌봄 담당자 및 가족경제를 책임맡은 책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HIV/AIDS와 기타 성병 등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사회적, 건강적 측면에서 그 결과를 판단해야 하며 사회심리적, 성적 역할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5. 성폭행 특히, 신체 정신적 학대는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꺼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수명의 연장과 여성연구의 노령화 추세는 노년 인구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여성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그들이 폐경기와 더불어 수반되는 생리적, 정서적 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적절한 영양과 육체적 활동감소와 더불어 여성의 폐경은 심혈관질환 및 골다공증을 초래한다.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타 질병과 노화과정에 따른 불구(불능)의 상태 또한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7. 농어촌 및 저소득층 여성은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험물질에 점점 노출되어 가고 있다.

여성은 유해환경과 오염물질에 취약성이 높으며, 위험환경에 노출된 결과 역시 심각하다.

8. 여성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은 남성에 비해 취약하여 흔히 치료받기가 힘들며,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도 못한다.

또한 여성들은 기본적인 건강지원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남성과 달리 저조한 상태이며 여아의 질병, 영양실조, 빈혈, 설사,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도 남성과는 다르며,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 또한,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데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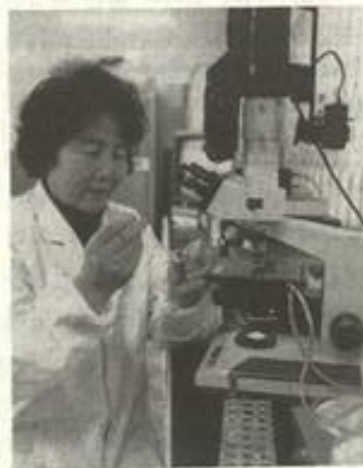
9. 생식건강이란, 생식 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쇠약의 상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식건강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생식의 가능성 및 언제,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자유를 갖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생식의 권리는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며, 자기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분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 및 성과 생식의 건강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다. 또한, 그것은 인권자료에서 표현된 것처럼 차별과 강제 및 침해에 관한 생식의 자유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성건강은 단순히 생식과 성적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병에 관한 상담과 자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삶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0. 성의 권리는,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의 강제성, 차별대우, 침해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관리하는 개개인의 권리를 포함한다.

성 관계와 생식의 문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간의 대등한 관계는 인체의 신체적 통합성을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을 포함하여, 성행위의 양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서로의 동의와 하고자하는 의욕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여성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일생을 통해 적절한 보건의료정보 및 필요한 의로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와 정보의 보급을 높여서 많은 여성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은 성과 생식에 관한 부적절한 반응과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결여로 인해 위험한 건강상태에 빠지기 쉽다.

생식연령기의 여성에게서 출산, 분만과 관련한 합병증은 사망률과 이환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유발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유산은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중대한 건강문제이다.

대부분의 이와같은 사망과 건강문제 및 상해는 예방할 수 있고, 이는 그들이 선택한 가족계획 방법 중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생식조절을 위한 방법과 여성들로 하여금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및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포함한 여성의 생식권리를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으로 의로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11. 생식에 관한 여성의 조절능력은 다른 권리를 향유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성과 생식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공유해야 할 책임은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또한 필수적이다.

건강에 대한 자료가 자주 통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여성의 사망률과 유병률,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건강상태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최근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사춘기 소녀와 모든 연령층의 여성의 건강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춘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건강 서비스의 대책과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 유형, 여성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여성건강에 대한 연구는 자금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심장질환, 역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성에 대한 연구였지 성의 중립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12. 피임약을 포함한 임상실험은 약의 용량, 부작용, 효과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고자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여성에게 시행되는 많은 약물치료와 다른 의학적인 치료 및 증제는 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와 조정없이 남성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13. 건강상태의 불공평과 여성과 남성간의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정부와 연구자는 성의 차원에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한 정책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취하기 전에 여성과 남성을 각각으로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II. 여성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현재 한국여성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 목적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략적 목적 1

여성들은 일생을 통해 적절한 보건의료정보 및 필요한 의로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목적 2

여성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시킨다. 이에 있어 민간단체는 정부, 대중매체, 개인, 국제조직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전략적 목적 3

에이즈/면역결핍성질환 그리고 성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단체 및 개인은 다방면에 걸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적 목적 4

여성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와 정보의 보급을 높여서 많은 여성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전략적 목적 5

건강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성건강에 대한 정부정책 및 예산 규모 등을 모니터하여 국가로 하여금 여성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목적 5가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즉, 국가-사회 및 개인차원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 여성은 비로소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초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호에 이어 독일,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육아지원 정책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신용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통일 독일은 1994년 4월 헌법인 기본법을 개정하고 「제2차 남녀동권법」을 성립시켜 1996년부터는 독일의 여성들이 3세 이상의 어린이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국가에 보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도 상당한 소득보장을 받으면서 종전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다.

I. 독 일

1. 통일 독일의 「제2차 남녀동권법」과 육아지원정책
독일의 여성은 한평생 3K(Kinder(아이), Küche(부엌), Kirche(교회))를 맴돌며 살다 간다고 말하여 왔다.

이러한 독일적인 생활관습은 어린 아이는 적어도 3세까지는 양친으로부터 완전한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관습적인 원칙이 아동보육 정책에도 반영되어 육아 휴직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5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엄마들의 취업률이 급증하여 탁아, 보육시설의 터무니 없는 부족현상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정책적 과제가 독일 정부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기본법(헌법)에 따라 보육정책의 관할권은 각 개별 주(Land)로 되어있다.

1986~87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3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은 이 나이의 어린이 중 3%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그중의 3분의

2는 보육원(Kripe) 또는 혼합연령보육센터(0~6세아 담당)에서 보육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세에 유치원 입소를 허락받았거나(사실은 이 나이에 유치원 입원은 위법이다) 개인적인 보모(Tagesmutter)의 보살핌을 받는데 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공공재정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들 보육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드물게는 민간단체나 양친그룹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더욱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여진 보육서비스에 대한 취업여성들의 불만, 특히 거의 100%의 공공탁아시설의 서비스를 받던 동독측 여성들의 강력한 불만과 문제해결의 요구로 통일연방정부는 근로여성들이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1994년 4월 헌법인 기본법을 개정하고 「제2차 남녀동권법」을 성립시켜 보육정책의 혁신적인

개정과 남녀근로자가 가정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

즉 1996년부터 독일의 여성들은 3세 이상의 어린이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국가에 보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도 상당한 소득보장을 받으면서 종전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서독의 보육정책이나 통일 후에도 현재까지의 보육정책은 다른 유럽제국에 비하여 아주 낮은 수준이다.

2. 서독의 보육시설

통일 이전의 서독에서는 3가지 유형의 보육시설이 있었다.

하나는 일반적인 탁아소 "Kinderkribe"인데 이곳은 3세 이하의 영유아만을 맡아 보육하며 주로 저소득층의 근로여성이나 미혼모 등 가정에서 아이를 돌 볼 사람이 없는 형편의 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5~6세의 취학전 아동 중에는 극히 일부인 약 6% 정도만이 취학전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는 몇개의 주 뿐이다.

보육비는 주에 따라 다르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용자에게는 대폭 삭감의 혜택을 준다.

민간 시설도 더러 있고 직장 탁아소도 있지만 그 수는 별로 많지 않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원은 미등록의 경우가 많아 숫자파악이 어렵다.

둘째는 유치원(kindergarten)으로 3~6세의 어린이를 위한 곳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이곳도 Kinderkribe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또는 미혼모의 어린이를 주로 맡아 보육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린 아이를 교육시키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어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위한 이용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시설은 주로 민간단체가 운영하면서 공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3~6세의 어린이 중 68%가 Kindergarten에 다니고 있는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오전중에 4시간 동안만 돌보고 귀가시켜 부모들은 오후에는 또다시 아이들을 맡기기 위하여 과외적인 보육센터로 보내야 하는 걱정과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혼합연령보육센터인 'Kinderhort'이다.

Kinderhort는 전일제인 Day Care를 하는 곳이 많아 보호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이러한 아동보육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Day Care Center의 이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낮시간에 엄마대신에 아이를 돌봐주는 양모(Tagesmutter)가 돌보는 경우, 조모나 친척의 손을 빌리거나 이웃에 맡기는 경우 등 개인적인 해결방법도 많은 편이다. 정책당국은 Tagesmutter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일의 심각한 보육시설의 부족과 육아지원정책의 미흡은 통일후 일하는 여성들 특히 동독측 여성들의 강력한 불만과 적극적인 정책개선의 요구로 나타나 정부는 밀리듯이 1994년에 드디어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은 독일의 남녀근로자들이 모두 육아와 직업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큰 기대를 갖고 환영하는 새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II. 일 본

1. 일본의 보육정책

일본의 보육정책은 조치제도라고 불리는 공공보육원으로 대표된다.

조치제도란 이 나라의 아동복지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이의 보호자가 노동이나 질병등의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市, 町, 村(우리나라 시, 구, 동)에서 책임지고 이 어린이를 보육원에 입소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市, 町, 村이 이런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원배치나 시설설비에 관한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 아동보육비 즉 조치비를 아동의 부양의 무자로부터 부담능력에 따라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어린이의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해준 징수비용의 차액은 중앙정부가 2분의 1, 지방자치체인 都, 道, 府, 縣이 4분의 1, 市, 町, 村이 4분의 1씩 분담하여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 조치제도에 의한 보육정책으로 1975년에는 1만 8천9개소의 보육원에 163만1천명의 어린이가, 1980년에는 2만1,960개소, 199만6천명의 어린이가 보육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1992년에는 2만2,637개소에 입소아동은 약 162만명으로 수용정원 196만명의 82.6%에 불과해(공영 77.3%, 사영 90.3%) 보육원 과다현상을 나타내면서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제기와 개혁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여성의 취업형태의 다양화, 취업의 정착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보육지원정책은 보호자가 노동이나 질병으로 가정보육이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만을 1일 8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는 단순한 내용의 보육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국(중앙정부), 지방자치체와 보육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앞으로의 보육대책에 대한 검토회」가 1994년 4월 향후의 보육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었으며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협의를 거친 「육아의 사회적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일명, 엔젤플랜)」이 책정되어 1994년 8월에 연립여당의 복지 프로젝트 팀에 제출하였다.

이 종합계획에서 보육정책의 주무관청인 후생성은 대책의 구체화의 방향을 아래와 같은 3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 ① 보육원의 다기능화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과 시설정비를 촉진시킨다. 구체적으로
 - 3세 이하의 저연령아의 입소 확대
 - 연장보육서비스와 일시적 보육서비스의 확대
 - 지역의 육아지원사업의 추진
 - 다기능화, 복합화 등에 따르는 보육원의 중·개축
 - ② 개별적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야간 보육서비스의 육성과 진흥을 도모한다. 즉,
 - 직장(기업)탁아소와 역(驛)형의 보육클럽 등의 정비 촉진
 - 재택보육서비스(가정탁아소)의 육성
 - ③ 보육원 조치제나 이용요금 체계의 재조정으로 다양하고 양질의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등 보육지원 시스템을 다양하고 탄력성있는 내용으로 개혁한다는 것이다.
- 「엔젤플랜」에 따라 일본은 2천년까지 3세 이하의 어린이를 80만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확대시키고 연장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원수를 1만4천개를 확보하고 7천개소의 보육원에서는 정거장(驛型)식의 일시보육을 담당케 하고 지역의 육아지원 사업의 모델로 7천개소의 보육원을 확보하며 다기능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육원 확보를 위하여 3,500개소를 중·개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육아지원대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 몇몇 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을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 정책으로서의 보육원은 이제 될수록 많은 수의 보육원에 가능한 많은 수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하고 확실적인 탁아보육 서비스 대책만으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비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다양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아무리 확충한다 하여도 보육문제의 완전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육시설 서비스의 다기능화와 탄력화와 병행하여 가정내 보육지원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 양친육아휴직 제도가 충실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가정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으로서의 양친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현상

육아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복직을 보장하는 양친육아휴직제도는 남녀근로자가 육아와 직업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육아는 엄마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은 으레히 '취업모가 취득하는 휴직'이라는 관념은 많이 달라져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의 부모중 누구 한 사람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일부를 서로 나누어서 취득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1994년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

페인, 터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다수의 나라들이다.

휴가기간은 각기 조금씩 다르다.

출산휴가(보통 4개월)에 이어서 반년, 1년, 2년, 3년 등 다양하며 문제는 이 휴직기간 동안에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휴직근로자는 무급으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에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 이 경우 휴직을 신청할 때부터 사용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의 산정이 전일제 근무와 똑같이 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2.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휴직 중에 소득보장을 위한 급부를 하는 나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몇몇 나라 뿐인데 급부방식도 각각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은 18개월인데 처음 1년(360일)간은 휴직전의 급여액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당으로 최저액(60크로네)을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는 최장 3년간까지 지급하지만 처음 6개월은 월액 600도이취마르크, 7개월제 부터는 소득심사에 따라 지급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업보험에서 급부하는데 어린 아이가 1세가 되기까지는 기혼부부인 경우 월액 5159오스트리아 실링이고 홀어머니인 경우는 7717 실링 등이다.

그밖에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는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가사노동자, 고용, 육아서비스 시설의 이용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별 세액 경감조치 등으로 간접적인 소득보장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대책은 탄력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얘기다.

“에코페미니즘의 발단은 영국서 여성들이 미사 일배치를 저지하려고 수년간 미사일기지 반대운동입니다. 지역이름을 따서 그린햄운동이라고 하는데 얼마후 80년대초 미국에서 핵미사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핵미사일 반대운동에 나선 여성들은 매년 여름 핵반대캠프를 열고 지속적으로 핵반대운동을 폈습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무차별사격」에 신음하는 자연환경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당시 정치가, 학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어머니들은 식염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핵운동에 나섰다. 독일의 많은 가정에서 체르노빌사건 직후 소시지, 고기를 일체 피하고 쟈만 먹곤했다.

그는 또다른 예로 인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칩코운동을 들었다. 80년대초 인도 칩코지역에서 미·유럽에 수출할 스포츠기구를 만들기 위해 히말라야지역의 숲에서 아름답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인도남성들은 일자리가 생긴 데 만족하고 있었으나 여성들은 물과 신선한 공기, 식량보호를 위해 나무를 일싸안고 벌목을 저지했다. 이때 이 운동에 참여한 반다시바는 마리아 미즈의 둘도 없는 운동 동역자가 됐다.

“남성들은 이제 민족간의 분쟁,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위협하는 전쟁을 그쳐야합니다. 환경문제는 바로 여성문제와 얽혀있어요. 환경파괴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아이들을 키우며 식생활을 꾸리는 여성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 구출」의 가능성을 여성들에게서 발견하고 희망을 갖는다.

“여성이 억압되는 개발은 이제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연은 정복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공존해야할 존재입니다.”

그는 인도에 있는 독일문화원에서 5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만난 인도 현지인 학생과 결혼했다. 남편도 환경운동가로 뛰고 있는 ‘환경운동부부’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 기념행사



우정의원, 정옥순의원, 이상희위원장의 축하말씀이 있는 후 강영희 교수의 플롯 축하공연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여협의 발전과 여성계 도약을 축하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을 나누었다.

주한 대사부인 초청 간담회

본회는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13일 오후 6시 상공회의소 12층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김장숙 정부 제2장관, 이우정의원, 정옥순의원, 박종용의원, 신낙균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이상희 위원장 및 본회 임원·이사, 시도여협회장, 언론사 등 150여명의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연숙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여협소개 비디오 상영, 올해 본회에 가입한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한국여성정보인협회 등 가입단체에 가입증 전달 및 협동회원단체인 인

천광역시·전라북도·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증 전달을 했다. 또한 본회 활동에 도움을 준 홍정희 출판공보위원, 류민자 화가, 나미래출판공보위원에게 감사장을 증정했고 본회 김금래 사무총장과 오해란 기획부장에 대해 10년 근속표창이 있었다.

김장숙 장관의 축사에 이어 이

본회는 지난 11월 27일 정오에 롯데호텔 36층 벨루룸에서 주한 대사부인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주한 여성 대사인 노르웨이 대사를 비롯하여, 대사부인 39명과 이우정 국회의원,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홍귀주 외무부 미주국장 부인을 비롯한 본회 임원, 이사, 국제관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이연숙 본회 회장과 노르웨이 대상의 인사말, 본회 활동 소개 비디오 상영 및 강영희 관동대 교수의 플롯연주, 주한 대사부인들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한 대사 및 대사부인들에게 비공식 민간외교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한국 여성계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발전하는 한국여성을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

본회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



자회관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후원으로 "정치드라마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매스컴 모니터링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MBC와 SBS에서 방영하는 정치드라마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를 10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회분의 모니터링 한 것을 분석, 평가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 전상금 회장이 '정치드라마 모니터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김기태 서강대 강사의 '정치드라마의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발제강연에 이어 이연숙 본회 회장의 사회로 김세중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우광 SBS TV제작국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MBC TV 제작부장, 이경순 방송평론가,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두 정치 드라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문민정부 여성관련 공약 사항 중간평가 좌담회

본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 2층



회의실에서 문민정부의 여성관련 공약사항에 관한 중간평가를 갖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입기 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대선 당시 내세운 여성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고 미비한 점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회 이연숙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명숙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박길상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관, 박우건 정부 제2장관실 조경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영애 한국 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정자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이 참석하여 토론하였으며 1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지난 12월 2일 본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주관 '우리는 하나' 가두캠페인에 참여하여 모금행사를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명동에서 오후 2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및 풍물놀이로 이어 성금모금을 위해 거리의 행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고 전단을



나누어 주며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본회에서는 이연숙 회장 및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금모금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였고 모금한 성금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에 전달했다.

한국정세, 정보화 사회과목, 국내외 시찰, 논문제출 등 국방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군사, 비군사적 측면의 지식과 시각을 갖는 과정이다.

동정란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이며 본회 근로여성위원장인 이정자 회장은 지난 11월 6일 국방대학원 개원 40년만에 민간여성 1호로 안보과정을 졸업했다.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은 주 5일 종일 과정으로 1년동안 국가안전보장이론, 국제정세, 북한정세,

대한영양사회

1995년 식품모니터요원 교육실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10월 21일 대한영양사회 강의실에서 50여명의 식품모니터요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식품관리과 김진수 과장의 "식품위생 관리행정과 식품위생법", 서울시 보건위생과 김재종 과장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는 주제로 5시간 동안 1995년 식품모니터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영양에 관한 전문인인 영양사가 앞장서서 식품의 안전과 위생확보를 위한 지도 및 감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에 의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에게 '식품위생 및 안전, 우수한 제품생산'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식품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작하게된 대한영양사회 식품모니터활동은 영양사의 역할확대 및 우수한 식품선택을 위한 대국민홍보 및 지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현재 전국 9개지부에서 56명의 식품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선 '수조육을 포함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다.



국제존타한국연합회

국제존타 26지구 대회

국제존타 26지구(한국, 대만, 일본) 대회가 지난 11월 10일~1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한국지역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사등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21세기의 여성건강과 환경, 여성인권에 대한 패넬토의 및 분과회의 등을 가졌다.



창립 기념 행사

국제존타한국연합회는 국제존타 창립 76주년과 국제존타서울클럽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6일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기념행사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국내외 인사와 국제존타 회원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식과 강연회 순으로 진행하였는데 강연회에서 송 자 연세대총장은 WTO시대에 즈음한 국가경쟁력과 전문직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전국 임원연수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11월 4일~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전국 20개 클럽의 회장과 총무 및 연맹분과위원장이 모여 15기 전국 임원연수회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 여성운동의 재조명', '정치 및 고용합당제 운동방안', '성희롱대책 활동문제', '매스컴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 워크샬을 통해 1996년도 과제발굴 및 연맹과 지방클럽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전주클럽 임원인준식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제 20번째 지부로 탄생한 전주클럽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전주 목화타운 예식장에서 회원과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인준식을 가졌다.

창립 회장에는 조덕이 교수(우석대 생물학과), 부회장은 엄경숙 교수(전주대 음악학과), 이영혜

원장(산부인과 원장), 총무는 고영원 위원(보이스카웃 지도위원)이 선출되었다.

여성문제연구회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송년회의 밤

여성문제연구회는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주최로 지난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명동일대에서 있었던 불우이웃돕기 가두모금 및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또한 12월 15일 오후 5시에는 서울클럽에서 본회 이사회 및 송년회의 밤을 갖고 본회 창립 43주년 기념행사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여성학자들의 모임 학술발표회의 평가회를 겸하였고 내년에 있을 여성노인문제연구 중간점검 및 '96년도 사업계획 심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여학사협회

제8회 문화유적답사

한국여학사협회는 지난 1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제8회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했다.

지도강사 박원순 선생(본회 역사위원)과 답사반원 46명은 첫날에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0일간 광주의 문화벨트인 중외공원안에 4천5백평 규모의 공간에 거대하게 펼쳐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한 후, 이조 중종때 사람 양산보(조광조에게 사사)에 의해 10년에 걸쳐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지은 민간정원의 백미인 소쇄원을 답사했다.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이번 비엔날레는 13개의 전시부문에 58개국의 작가 6백60명이 1천2백88점을 출품했다.

다음날인 15일에 송광사 말사인 쌍봉사의 철감 선사 부도(국보 57호) 및 부도비(보물 170호)와 한때는 천불천탑동이라고 불리워져 유명한 운주사를 답사했다. 오랜 세월동안 무지한 사람들이 탑이나 불상들을 헐어다가 묘지 상석이나 축대들로 사용하려고 옮겨 지금의 운주사는 석탑 12기와 석불 70여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중에서 9층 석탑(보물 796호), 석조불감(보물 797호), 원형다층석탑(보물 798호) 등이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귀로에는 백양사 말사인 불회사 입구에 우뚝 서있는 돌장승(중요 민속자료 11호), 2.3m의 남장승과 1.7m의 여장승을 답사했다.



‘제일버드’ 역자 나영균씨와 「작가와의 만남」 시간

한국여학사협회 독서회는 지난 11월 6일에 ‘제일버드’ (Jail Bird) - 커트 보네겟 지음 - 을 번역한 나영균 명예교수(전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를 초대,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서 나영균 교수는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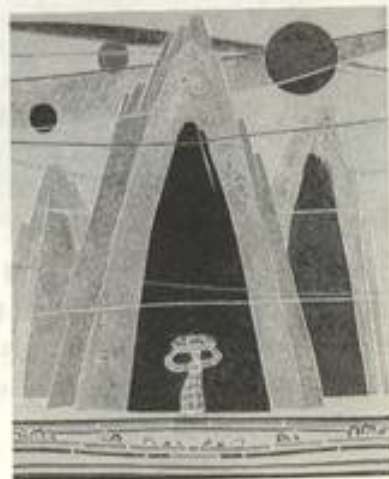
버드’의 주제 및 내용을 상세히 분석,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기본적인 뜻과 출현의 필연성 및 작품구성의 특징, 작가가 할 일들을 명쾌한 논조로 강의를 한 후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5년전에 발족된 본 독서회는 현재 뜻을 같이한 독서가 200여명의 회원이 매달 선정된 책을 서점가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읽고 있다.

표지의 말

그날이 오면

류민자 작



류민자씨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와 1981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1970년 하인두·류민자 부부전 이래로 12회의 개인전과 80년 서울신문창간 35주년기념 동·서양화 정예작가 초대전, 90년 예술의 전당미술관 개관 기념전의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을 열었으며 75년~77년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현대미술전 및 79년~84년 프랑스 파리의 Art Sacre Art & Matiere Expression Spirituelle 초대, 79년에서 85년 프랑스 파리에서 Comparaisons전 등의 국제전을 가졌다.

제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및 Association Belgo-Hispanica Belgique 왕족상의 다수를 수상했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0,000원
민병옥(국제존타서울클럽)	200,000원
송미영 (한국이동통신)	10,000원
송영민	10,000원

• 창립 36주년 축하금 •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100,000원
정연심 (본회 부회장)	100,000원
박동순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회장)	100,000원
강경화 (본회 국제관계위원회 위원)	100,000원
손성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총재)	100,000원
조선훈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동대행)	100,000원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100,000원
안목단 (한국부녀복지연합회 회장)	60,000원
한지영 (본회 재정위원)	50,000원
정숙자 (황해도 부녀회 회장)	50,000원
김정희 (국제소림티미스트 총재)	50,000원
김보금 (국제소림티미스트 차기총재)	50,000원
천도교여성회본부	50,000원
남상민 (한국자수문화협회의 회장)	50,000원
한국여성불교연합회	50,000원

최돈숙, 장수영(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재무)	50,000원
류민자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50,000원
김명자 (본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회 위원)	40,000원
장성자 (한국여성개발원 사업본부장)	30,000원
최현숙 (강부자의원실 보좌관)	30,000원
김정애 (3·1여성동지회 회장)	30,000원
김옥환 (본회 감사)	30,000원
오경자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소장)	30,000원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부장)	30,000원
주일억 (국제존타서울클럽)	30,000원
이옥기 (본회 부회장)	20,000원
김동순 (국제존타서울클럽)	20,000원
강정숙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20,000원
이광택 (본회 근로여성위원회 위원)	20,000원
무 명	20,000원
이인자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교문)	10,000원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부회장)
대사부인초청오찬 비디오 · 사진촬영
창립 36주년 기념 비디오 · 사진촬영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나간 해를 되돌아 보고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설계하는 이계절에 가지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은 우리 여성계에 실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북경에서 가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적극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전 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루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더욱 활발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새롭게 가입한 단체들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손명순 (대통령 영부인)

창립 36주년을 맞은 여협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우정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낙균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강부자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종웅 (신한국당 국회의원, 부산시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김령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참으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김찬진 (신한국당 서초구 갑지구당 위원장)

이영애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창립 36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최영희
제1부회장 김화중
제2부회장 최국미
사무총장 한철우

한국여성단체협회의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존타서울클럽

회장 김인규

한국여성단체협회의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

회장 서은경

한국여성단체협회의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숙향

한국여성단체협회의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소름티미스트 한국협회

총재 김정희

창립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통일여성협의회에서는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 맛의 장아찌, 들깻잎, 고추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Tel : 244-5208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고기효

전남협의회 회장 김순희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흥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장 진민자
원장 최병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등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굳게 뿌리내려
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중앙부인회

회장 김취복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6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신혜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6주년을
축하합니다.

민병옥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행길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부 서 회 감 조 재 국 소	회 기 계 직 제 비	이 이 관 관 호	리 위 위 연	원 원 원 원	장 장 장 장	이 정 사 사 장 장	연 연 회 회 회 회	숙 심 순 신 한 숙 덕 회 주	부 부 서 회 감 기 출 근 사	회 기 계 회 관 로	이 이 구 위 위 원 원	장 장 장 장	박 이 감 양 김 한 서 이 김	영 옥 인 은 경 말 은 정 금	혜 기 자 숙 애 숙 경 자 래
---	----------------------------	-----------------------	------------------	------------------	------------------	----------------------------	----------------------------	---	---	----------------------------	---------------------------------	------------------	---	---	---

회 원 단 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귀	충구 쌍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한말숙	용신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국여학사협회	이윤옥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김희운	충구 잠실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김희운	용신구 한남동 738-20 화상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박애정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이안숙	충구 영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김경종	마포구 아모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김종인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향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박은방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박동숙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이왕준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현순은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문수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507호	784-4851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김숙희	종로구 광화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이예준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옷협회	김민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 4층	738-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김고영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김고영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협회	문수순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603호	842-2466
국제여성승공연합회	김숙희	용신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김고영	용신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고영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정영수	효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문수순	성동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문수순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박정영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혜영회관 807호	73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송윤라	충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김성모	광진구 화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김성모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김성모	강남구 논현동 192-6 법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성모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김성모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김성모	강서구 등촌동 645-11	3662-9417

협동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명	회 장	주 소	전 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옥희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6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정영애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여성회관 3층	0652-76-967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회관	0331-39-8813

편집 후기

다사다난했던 9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협의 창립 36주년을 맞이했다. 여성이 여성
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그간 여협이 걸어왔던 길 못지않게 더 나은 복
지사회와 인간답게 사는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힘껏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5년12월호 통권336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이연숙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식 · 편집 : 한라기획

발행일자 : 1995년12월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서은경

위 원 :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 이선명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
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능력있는 여성, 세계화의 동반자

생명, 사랑, 환경—그것의 중심엔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화시대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여성문제는

더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활짝 가슴을 열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오랜 불평등의 문을 밀어젖히고 나아가야 합니다.

2천만 여성이 바라는 남녀평등 사회는 이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 여성들 모두가 유능한 일꾼으로, 주부로 땀흘려 일할 때

다가올 세계 속의 화창한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신한국당